

# Visit INCHEON Enjoy Festival



2009 인천방문의 해  
VISIT INCHEON 2009, KOREA

기간\_ 2009.1.1.~12.31

장소\_ 인천시 전역

2008. 10  
굿모닝인천



Good Morning

INCHEON



인천광역시

쾌조차 달리는 들녘



고 윤 作 · 90.9cm×60.6cm · 1994

10월에서 11월의 소래 염전 주변은 빨강게 핀 나문재로 향홀했다. 뚝방 철길을 달리는 쾌조차의 아름다운 풍경 또한 잊지 못한다. 쾌조차란 일명 가시롱차로 염전에서 소금을 운반하는 작은 기차다. 지금도 이곳에서 조금씩 소금을 생산하지만 쾌조차는 사라지고 없다. 그때의 향수를 그리며 가끔 찾곤 하지만 썰렁한 뚝방 길은 그때 그 시절 낭만의 길은 아니다. ‘다시 복구하여 쾌조차가 달리는 관광명소로 개발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 - 고 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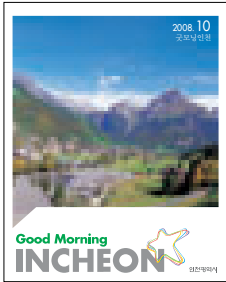
Good Morning INCHEON

| 세 | 계 | 일 | 류 | 명 | 품 | 도 | 시 | 인 | 천 |

2008. 10

CONTENTS

October 2008 통권 178호



표지에 담는다 \_\_\_\_\_  
세계 명품도시 ⑨ 스위스 엔젤베르그(사진:김성환)

Fly Incheon\_

- 04 Music Korea 2008
- 18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 22 포커스
- 24 Fly Incheon News
- 28 웰컴 투 인천
- 29 군·구 소식
- 30 시의회 소식
- 32 특별기고
- 36 세계 명품도시 탐방 ⑨
- 58 영어회화로 인천배우기

국제적인 악기박람회로 발돋움  
세계 문화의 거리  
베이징올림픽 출전 인천 소속 선수단 환영  
‘IFEZ 아트센터 기공’ 외  
‘프놈펜시와 자매도시 MOU’ 외  
‘중국어마을 조성 가속화’ 외  
‘제168회 임시회 진행’ 외  
인천, 국제적인 복합운송기지 전망 밝다  
스페인 빌바오  
Sky Festival

Incheon Life\_

- 08 인천 200% 즐기기
- 14 Taste of Incheon
- 20 Enjoy Incheon
- 34 Healthy Life 건강백세
- 40 Cinema in Incheon
- 42 조명
- 44 막노막下
- 47 이달의 인천 책
- 52 Info Box

문학경기장  
인천음식문화축제  
10월의 축제  
대사증후군  
섬, 항구, 갯벌... 인천은 영화다  
재능대학  
‘빛의 틈 사이에서’ 외  
영종 용유지 & 아! 옛날이여  
‘환경지도자 전문화교육과정 수강생 모집합니다’ 외

Incheoner\_

- 12 Zoom in
- 31 모닝 인터뷰
- 35 김치철락
- 48 인천역사 책갈피
- 50 독자글마당

인천상륙작전 첫 재현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철 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윤지상 위원장  
‘독서의 계절’ 외  
야구사랑은 인천의 진한 지역정서  
‘이것도 취미라고’ 외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4) / 광고문의 (032-440-3052)

발행처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8년 10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  
편집인 공보관 김진택  
공보담당 사무관 조형도

편집장 유동현  
취재 편집위원 정경애  
편집위원 정경숙  
사진 심영보·하장원(시 공보관실)  
김성환(포토저널리스트)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편집디자인 성광디자인(주)  
인쇄 (주)해동종합기획  
〈굿모닝인천〉은 <http://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Music Korea 2008



# 국제적인 악기박람회로 발돋움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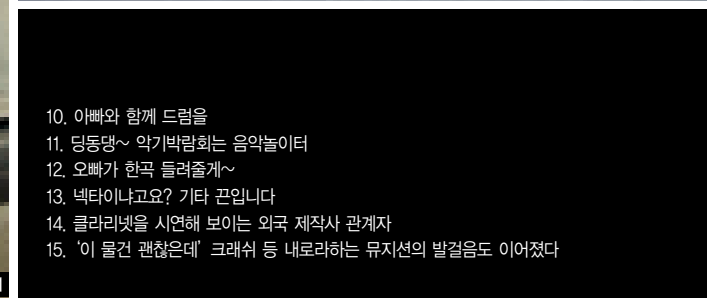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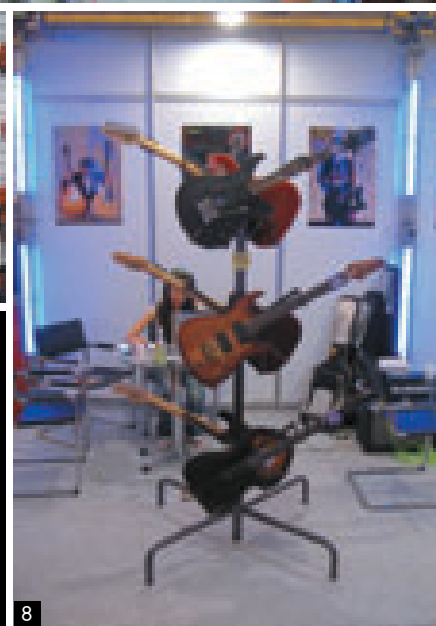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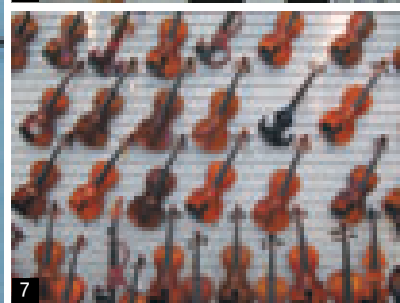


1. '케니지' 브랜드가 붙은 G시리즈 명품 색소폰들
2. 악기박람회가 열린 3일 내내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3. 개막식에 참석한 안상수 시장이 색소폰을 건네받고 있다
4. 오카리나 연주회의 꼬마 관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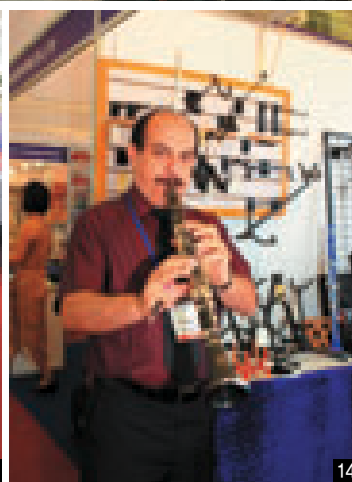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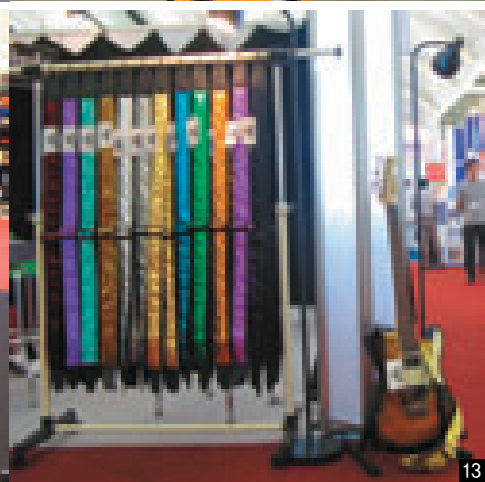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송도국제도시는 감미로운 악기 소리에 휩싸였다. '2008 인천국제악기전시회(뮤직코리아 · Music Korea 2008)'가 송도컨벤시아에서 성대하게 진행됐다.

우리는 목재수입의 창구 역할을 하는 항만으로 인해 일찍부터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등 세계적인 악기업체가 자리 잡으면서 악기산업이 발달했다. 국내 최초로 개최된 인천국제악기전시회는 지역 악기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열려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현악 · 목관 · 금관 · 타악 · 국악 · 건반 악기 등 국내외 악기제조업체와 음향 · 무대조명 관련기기 등 8개국 121개사가 참가해 255개 부스를 설치 운영했다. 전시회에는 국내외 바이어 3천여 명이 찾아 비즈니스를 펼쳤고 2만5천여 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아 다양한 악기의 오묘한 소리에 흠뻑 젖었다.





5. 어린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발로 치는 피아노  
6.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비니 무어의 즉흥 연주  
7. 전시된 현(絃)악기들  
8. 설치미술작품처럼 보이는 일렉트릭 기타 전시  
9. 악기박람회에는 악기뿐만 아니라 각종 음향기기  
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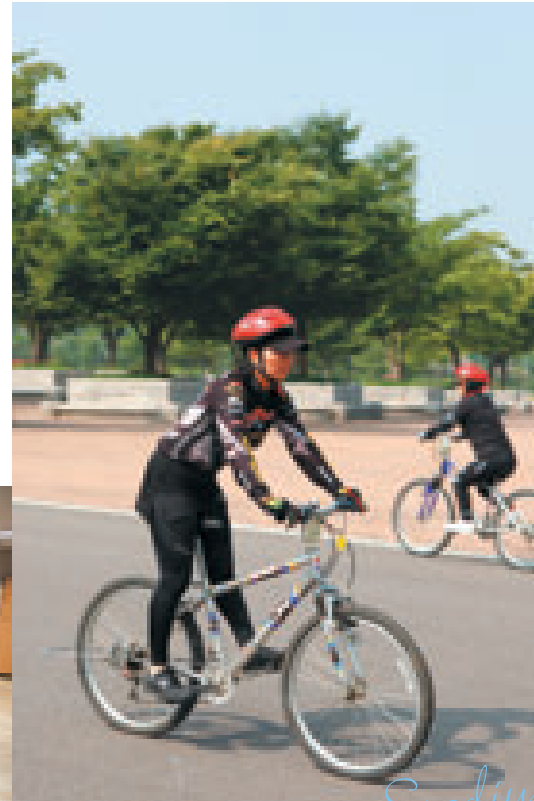
송도컨벤시아는 사흘간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밴드경연대회와 대학동아리와 일반인들이 참가한 재즈밴드콘테스트 등이 열렸고 중앙대 마패예술단과 화인오케스트라의 공연 등 클래식에서 록, 국악에 이르기까지 음악의 모든 장르들이 어우러진 뮤직페스티벌이었다. 특히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비니 무어(Vinnie Moore)가 현장에서 미니 콘서트를 열어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야외무대에서는 일반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크래쉬, 크라이닝, 트랜스픽션, 이상은, 호란, 소규모아카시아밴드 등의 음악공연이 펼쳐졌다. 🍷



# 문학경기장, 아웃도어 문화센터로 변신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의 발판을 마련했던 문학경기장. 월드컵의 함성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지만,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 아니라도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인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저마다의 목적으로 문학경기장을 찾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 연령대를 달리해 이채롭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Munsu Stadium

## 두 바퀴로 바람을 가르다 자전거교실

여름이 끝난 것 같은데도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며 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피약별이 쏟아지는 문학경기장의 오전 시간을 점령한 이들은 자전거를 탄 ‘아줌마부대’이다. 문학경기장 운영을 맡고 있는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마련한 자전거교실 덕분이다.

기수별로 운영되는 자전거교실은 초급 2주, 중급 2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9월 둘째 주에는 29기 수업이 한창이었다. 대상은 ‘인천시민 누구나’이지만 실상은 미처 자전거를 배우지 못한 주부들이 대부분이다. 교육시간이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인 탓이기도 하다.

처음 자전거교실에 등록하면 이론교육을 먼저 시작한다. 자전거도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 등을 설명해 준다. 이제 자전거 끝기부터 시작해 본격적인 자전거 마스터에 나선다. “보통은 뒤에서 누군가가 자전거를 잡아 주고 무작정 페달을 밟기 시작하지만 여기서는 스스로 자전거를 감당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자전거교실을 맡고 있는 박상기 주임의 설명이다.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기는커녕 제대로 끌지도 못해 꺾꺾대던 수강생들은 자전거를 끌고, 평지에서 중심을 잡고, 이윽고 내리막에서 중심잡기로 이어지면 드디어 자전거 타는 ‘맛’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자전거를 배우는 데는 문학경기장이 안성맞춤이다. 경기장 전체를 자전거 연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안장에 오르고, 페달을 밟고, 기어를 변속하는 수순을 밟으며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 초급과정을 배우고 있는 유정순 씨

(남구 송의동)는 “내가 자전거를 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신기해한다.

이론과 실기를 겸한 2주간의 초급과정 교육이 끝나면 자체 수료증을 수여하고 중급과정 2주로 이어진다. 중급을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중급을 마쳐도 막상 도로로 자전거를 끌고 나가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 그래서 중급 과정 후에는 도로연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로연수까지 마친 수강생들은 비로소 승기천으로, 석모도로 자전거를 끌고 멋지게 하이킹 할 날을 꿈꾼다.

**참가방법** \_ 3월부터 11월까지 2주 과정씩 운영되며 신청은 전화로(☎ 456-3020, 3024)할 수 있다. 문학야구장 1루 매표소 옆에 위치한 문학자전거교실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주며, 무릎 보호대와 장갑만 준비하면 된다. 강습료는 초급 2만원, 중급 3만원이다.

## ‘공짜’라 더 좋은 문화공간 문학유스센터

학교가 파할 무렵이면 문학경기장은 어린이들이 ‘점수’한다. 문학경기장 주경기장 지하에 ‘문학유스센터’가 등지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가 우리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문학유스센터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한 책임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문을 열었다.

문학유스센터에는 회의실을 비롯해 다목적실, 동아리방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는 청소년문화아카데미라는 큰 틀 아래 문화강좌와 청소년체험프로그램이 열린다. 문화강좌는



사고력향상, 전통문화, 창의력계발, 감성·정서함양의 분야에서 30개 남짓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영어나 수학 실력을 보강해 주는 강좌부터 모듬북, 태권, 뽀리댄스와 드럼, 통기타에 이르기까지 학습과 예·체능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는 강좌들이다. 또한 학교와 연계해 특별활동을 이곳에서 할 수도 있고,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동아리를 만든 후 연습 장소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는 성경 구절이 적용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럼 여느 문화센터의 강좌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으면 자신 있는 대답이 돌아온다. 문화센터와는 달리 모든 강좌가 무료로 진행되니 반값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물론 강좌에 따라 교재비나 재료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시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편, 여름과 겨울철 방학에는 가족프로그램, 체험교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열린다. 숲체험교실, 여름방학캠프, 문화아카데미 발표회 등이다. 이밖에 야외에는 한동안 공사를 하느라 사용하기 힘들었던 X 게임장에서 스틸을 즐길 수 있고, 인공암벽장에서 자연과 맞서는 연습도 가능하다.



**참가방법** \_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일년에 세 차례씩 열린다. 현재는 9월 16일부터 시작된 15기 강좌가 12월 20일까지 진행 중이다. 신청은 전화(☎ 429-1318, 437-1318)로 문의한 후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 사람당 2강좌 접수가 원칙이고, 무단 결석을 3회 이상 하거나 5회 이상 강좌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 재밌는 축구, 박지성을 꿈꾼다 문화 유소년 축구클럽

문학경기장의 명성은 뭐니 뭐니 2002년 월드컵에서 십분 발휘됐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계속 축구의 열기를 이어가고, 유럽이나 남미의 축구를 따라잡으려면 그들처럼 어린이들을 위한 축구교실이 많이 생겨야 한다고 목에 힘을 준다.

그 같은 목소리에 부응하듯, 지난 2004년 4월 문학유소년 축구클럽이 창단됐다. 하지만 문학경기장에서 운영되는 문학유소년 축구클럽은 박지성이나 이영표 선수 같은 축구 엘리트를 육성하는 축구교실은 아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운동을 하고 싶은 어린이라면 누구나 축구교실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여가활동 차원에서 누구나 즐기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아이들을 맡고 있는 김재형 강사의 생각이다. 다만, 뛰어난 기량을 보이는 어린이는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해 주기도 한다.

일주일에 두 번씩 축구장에 모이면 개인훈련 위주로 운동이 진행된다. 몸 풀기를 위해 호나우두처럼 드리블을 하는 아이의 모습이 해맑다. 저글링을 하고, 벅킴처럼 멋진 헤딩 연습을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체력을 키운다. 여기에 팀 훈련이 더해진다. 여가를 즐기면서 건강한 몸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축구는 협동운동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 게임을 하는 동안에도 모두 같이 하고, 혹 벌칙을 받게 되도 모두 함께 하도록 유도한다.

김재형 강사의 호각소리에 아이들이 멈칫하며 하던 행동을 멈춘다. 이제 슛패스, 롱패스를 연습한다. 인 아웃, 인



아웃하며 공을 다루는 모습이 제법 능수능란하다. 이 중에는 3년 이상씩 운동을 한 아이도 있고, 이제 막 한달 된 아이도 있지만 상관없다. 수준에 맞게 개인 연습을 하고, 짝을 지어 패스 연습을 하며 자연스럽게 협동심과 체력을 기른다. 이렇게 2시간 동안 맘껏 뛰면서 운동을 즐기고, 또래와 어울리며 즐겁게 축구연습을 하는 동안 아이들의 몸과 마음도 건강해진다.

**참가방법** \_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반과 4학년~6학년의 고학년반이 각 30명씩 운영된다. 전화로 문의(☎ 456-3020)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강습료는 월 5만원.

## 몸 튼튼 정신 튼튼 기체조교실

땅거미가 내리는가 싶더니 사위가 어두워지고 옆에 있는 물체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둠이 내려앉았다. 문학경기장의 보조경기장에서는 트랙을 돌며 몸 풀기 운동을



하는 이들로 작은 소란이 인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좋아하는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 운동장을 찾는 이들이다.

건강하고 미끈한 각선미를 뽐내며 트랙을 뛰는 사람들 틈 사이로 지긋이 연세가 든 어르신들이 눈에 띈다. 그들은 축구 골대 뒤편으로 자리를 잡고 가지런히 정렬을 한다. 어둠으로 보일 듯 말 듯한 플래카드에는 ‘인천국학기공연합회 국학기공 무료 기체조 교실’이라 안내돼 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기체조 교실이다. 열 다섯 명 남짓의 어르신들은 익숙한 숨씨로 단전치기를 하며 큰 소리로 숫자를 헤아린다. 향아리처럼 모은 손으로 우주를 감싸 안고 숫자를 거꾸로 헤아리며 단전에 힘을 모은다. 어느새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단전에는 기가 모인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몸은 건강할 때 내가 지킨다는 어느 표어처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숫자대신 ‘오 오 오 예쁘다, 그래 예쁘다’며 외치는 구호와 너무 잘 어울린다.

**참가방법** \_ 참가하는 요령은 따로 없다. 초보자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마음 먹는대로 저녁 7시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의 축구골대 뒤편으로 가면 기체조 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





## 58년 전 그 날처럼 ... ‘돌격 앞으로’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을 때 인천은 나라를 구하는 바람막이 역할을 했다.

한국전쟁의 전세를 완전히 뒤집으며 자유 대한민국을 구해낸 인천상륙작전이 58년 만에 처음으로 월미도 앞바다에서 재현됐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 사진 · 하정원 시 공보관실

### 2008년 9월 9일 아침

#### “월미도 상륙을 위해 돌격하라.”

지난 9월 9일 오전 10시 월미도 앞바다. 대함유도탄이 탑재된 해군의 1만4천t급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 지휘소에서 긴급명령이 떨어졌다.

작전 명령이 떨어지자 독도함과 향로봉함 등 2척의 대형 수송함에서 한국형 상륙장갑차(KAAV) 26대가 속속 빠져나와 해상에서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며 월미도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상륙장갑차마다 완전 무장한 포항 1사단 소속 해병들이 타고 있었다.

오전 10시 12분 드디어 상륙장갑차는 월미도에서 150여m 가량 떨어진 해상에 다다르자 일제히 하얀 연막탄을 발사하며 장관을 연출했다. 이 순간 하늘에서는 육군과 해군 소속 헬기 8대가 독도함 상공을 거쳐 월미도 상공으로 일제히 공중 돌격을 실시



했다. 낙하산을 타고 바다에 뛰어 내린 잠수부대원의 수중침투작전이 펼쳐졌다.

이날 상륙작전의 재현에는 해병대원, 육군, 해군 장병 등 1천5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이같은 재현 행사가 열리는 동안 독도함상과 월미도 해안에 구경나온 일반시민, 군 관계자 등은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상륙작전 재현에 앞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는 안상수 시장을 비롯해 행사를 주관한 정 육군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등 기념식이 열렸다. 또 독도함에서도 21명의 학생, 시민대표 등이 인천상륙작전 당시 전사한 영령에 대해 해상 헌화를 했다.

### 1950년 9월 15일 새벽

#### “됐어, 이제 커피나 한잔하지.”

마운틴 맥킨리호 함정 위에서 월미도 정상 105 고지에 성조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 맥아더 장군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 한마디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것이었다.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새벽에 시작되었다. 미국, 영국 등 연합군 함정 260척과 한국 해군의 초계함 4척 그리고 미 제 1해병사단, 미 제 7보병사단, 국군해병 제 1연대 등 7만5천여 명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상륙하기 전에 월미도와 인천 시가지에 쏟아 부은 포탄만도 2천845발이었다. 월미도는 예닐곱번 뒤집어졌고 인천은 완전히 불바다였다. 이어 상륙정을 앞세우고 육지에 도달한 해병대원들은 시내에서 패주하는 인민군 소탕작전에 들어갔다.

작전 개시 12시간 후에 유엔군 비행기는 인천 시내에 전단을 살포했다. ‘인민군 장병에게 알린다. 강력한 유엔군 부대가 인천에 상륙하여 전진 중이다... 즉시 유엔군에게 항복하라. 맛있는 음식과 치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 10월 18일, 학도의용대 났 기린다

제 10회 인천학도의용대 국가유공자회 전사자 및 작고 회원 합동추모제가 10월 18일(토) 오전 11시 자유공원 내에 있는 인천학도의용대호국기념탑에서 열린다. 한국전쟁 당시 인천 시내 각 중학교(현 대건고, 동산고, 인천고, 인천기계공고, 제물포고 등)가 주축이 되어 인천학도의용대를 조직했다. 그들은 인천 시내 치안유지를 하다가 징집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군에 자원입대, 수많은 전투에 참가해 154명이 전사했다.

# 눈으로, 향으로, 흥으로 인천의 맛을 즐긴다

가을, 여름내 별을 받고 자란 오곡백과가 싱싱한 자태를 뽐내고 들판이 황금물결로 일렁인다. 온 세상이 탐스럽게 무르익어 인심도 넉넉해지는 계절, 땅 위에선 축제가 열린다. 풍성한 먹을거리와 다채로운 볼거리, 흥겨운 행사가 쏟아지는 화려한 일상탈출의 장. '인천의 맛'이 있어 더 즐거운 축제 속으로 떠난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기간 \_ 10월 10일(금)~12일(일) 장소 \_ 문학경기장 북문광장 일원 문의 \_ 시 위생정책과 ☎ 440-2762



## 고소한



춘장냄새로 유혹하는 자장면의 고향이 인천이라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 달콤새콤한 맛과 탱탱한 면발이 입에 착착 감기는 쫄면도 우리시 태생이다. 그 뿐인가. 인천에는 함흥냉면, 평양냉면에 견주어 뒤지지 않는 맛에 넉넉한 인심까지 더해진 세숫대야냉면이 있다. 바다와 땅의 기운을 담뿍 받고 자란 향토음식도 빼놓을 수 없다. 밴댕이와 물텀병이 요리, 순무김치, 속노랑고구마 등은 보는 것만으로도 입 안에 침이 고이는 인천의 별미다.

풍요의 계절 가을, 인천을 대표하는 먹을거리가 한데 모인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바로 2002년 시작해 인천의 맛과 멋을 알리는 축제로 자리 잡은 '인천음식문화축제'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음식문화축제는 '감동적인 맛과 멋의 향연 그리고 어울림'을 주제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문학경기장 북문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에는 인천을 대표하는 음식을 비롯해 한국의 전통음식과 세계의 음식을 만날 수 있는 전시행사와

나눔행사, 체험 및 참여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제과·제빵, 향토 전통음식 및 창작 요리솜씨를 겨루는 경연대회가 열려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음식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삶을 윤택하게 하는 즐거움이다. 인천음식문화축제가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새롭게 발전시키리라 기대된다.

## Spectacle! 전시

눈으로 맛을 느낀다! 전시행사가 그 어느 해보다 풍요로워졌다. 대장금관에서는 옛 왕조의 격조를 고스란히 재현한 궁중음식과 한의학에서 일컫는 사상체질별 음식, 맛도 좋고 보기도 좋은 오방색음식 등 한국 전통음식의 향연이 펼쳐진다. 인천음식관에서는 인천의 향토전통음식과 특색음식이 저마다의 품미로 유혹한다. 전시는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까지 아우른다. 세계음식관에 가면 미각의 나라 프랑스를 비롯해 15개 나라의 음식문화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음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불려도 좋을 설탕공예와 제과·제빵 전시도 시선을 붙잡는다.

축제를 통해 미각과 후각을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축제 기간 동안 영양체험관에서 체지방을 측정하는 등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좋은 식단' 전시회를 통해 자신의 식습관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

## Surprise! 체험·참여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축제는 가라. 인천음식문화축제에는 케이크 만들기, 생크림 높이 짜기, 반죽 길게 늘이기 등 온 가족이 함께하기 좋은 행사가 마련돼 있다. 특히 시민들이 힘을 모아 12.3미터에 달하는 대형 케이크를 만들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벤트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자장면 빨리 먹기 대회와 수타 시연회도 축제의 즐거움을 더 한다. 이 외에도 떡메치기와 소달구지 타기 등 전통문화 체험과 뽕튀기와 달고나 만들기 등 추억의 간식거리 만들기 같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 Incheon Food Festival



# 최고의 요리로 인천을 알린다

“인천을 대표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 요리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야무진 꿈을 키워가는 곳이 있다. 바로 ‘맛’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음식 그 이상의 요리’를 창조하는 한국외식조리전문학원이다.

글 ·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 사진 ·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 Together! 나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고 다양한 이벤트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축제의 진정한 의미는 이웃간에 벽을 허물고 한데 어울리는 데 있다. 인천음식문화축제는 행사 기간 동안 만든 음식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과 나누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다. 또 요리전문가를 초청해 다문화가정에 김치만드는 법을 알려주며 36.5도의 따뜻한 온기를 전한다.

## Fantasy! 공연·행사

축제에 음악과 공연이 빠져서는 안 될 터. 경찰악대 퍼레이드와 국악, 난타 공연 등으로 축제는 흥겨운 막을 연다. 민족 고유의 문화와 관련된 행사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대장금 수라행렬과 수라상 올리기, 사대부가 전통혼례, 궁중복식 패션쇼 등이 축제의 즐거움을 배가 시킨다. 태권무, 탈춤, 사물놀이를 비롯해 B-boy, 퓨전음악 공연 등 시공간을 넘나드는 공연도 축제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한다. ♥

※ 자세한 일정은 본지 57쪽을 참고하세요

### 세계의 음식축제로 간다!

맛있는 음식이 거리로 쏟아진다! 자연의 기운을 받고 자란 재료를 인간의 손길로 빚어낸 음식을 주제로 한 세계의 축제 속으로~

• 싱가포르 푸드 페스티벌(Singapore Food Festival)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은 싱가포르 푸드 페스티벌은 전 세계 미식가들이 손꼽는 세계적인 음식축제다. 축제 기간 동서양을 넘나드는 세계 각국의 요리와 문화가 어우러진 거대한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 호주 멜버른 푸드&와인 축제(Melbourne Food&Wine Festival)

축제 기간 동안 지역 내 100여 개 레스토랑과 카페, 바에서 특선요리를 저렴하게 제공한다. 1천여 명이 하나의 긴 테이블에 앉아 오찬을 즐기는 ‘세계에서 가장 긴 점심’은 축제의 하이라이트. 멜버른 최고의 요리사와 유명인사가 팀을 이뤄 요리 실력을 겨루는 경연대회도 특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 홍콩음식축제

홍콩관광협회 주관으로 3주간 펼쳐지는 홍콩음식의 향연. 중국 황제에게 올려지던 정찬을 비롯한 미각코스가 환상적으로 펼쳐진다. 화려한 연회를 즐기는 것은 물론, 홍콩 최고의 주방장으로부터 요리비법을 배울 수도 있다. 웨이터 경주대회 등의 이벤트도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준다.



## 요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요리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에너지다. 음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기쁨을 전하는 곳이 있다. 1987년 인천제과제빵학원으로 부평에 처음 문을 연 한국외식조리전문학원은, 지난 21년간 우리나라 최고의 외식조리전문학원으로 성장하며 인천의 ‘맛’을 알리고 있다.

한국외식조리학원은 음식을 대하는 정신부터가 다르다. 한국외식조리학원의 유애경 이사장은 자신을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종갓집 막내딸로 태어나 어머니의 매운 손맛을 고스란히 전해 받은 그는, 음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통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시대에 맞게 재창조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도 ‘음식이 아닌 예술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늘 최선을 다하길 당부한다.

## 인천음식으로 세계 최고를 꿈꾸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최신식 시설을 갖춘 한국외식조리전문학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요리학원이라 부르기엔 손색이 없다. 1천983㎡ 규모의 넓고 쾌적한 공간에 특급호텔 수준의 최신식 기자재가 구비돼 있으며, 강사진 역시 화려하다. 특급호텔 조리장과 제과장 등 요리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을 펼친다. 작품연구반을 비롯한 수준 높은 교과과정도 자랑거리다.

이 때문에 학원을 졸업한 학생의 60%가 특급 호텔의 조리사

로 일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등 요리선진국으로의 취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제기능올림픽 등 각종 요리, 제과·제빵 대회를 휩쓰는 것은 물론이다. 올해에는 프랑스의 명문 요리학교 폴 보쿠즈(Paul Bocuse)의 세계요리대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해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한국외식조리학원의 꿈은 원대하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에 인천의 맛과 맛을 알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생들은 그 꿈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조리실 한 칸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 도전! 나도 조리사~

| 한국외식조리전문학원 교육과정 | 조리과 제과·제빵으로 구분되며, 각각 조리사 1년 전문과정, 자격증 취득과정, 취미과정, 국비무료교육과정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학점인정교육과 특수교육을 실시한다.

| 입학안내 | 1년 전문과정은 주·야간 40명씩 11월과 7월에 모집하며, 자격증 취득과정과 취미생활반은 수시로 모집한다. 전문학사과정은 전년도에 모집해 매년 2월말 입학한다.

| 찾아가기 | 부평역에서 내려 11번 출구 북부광장 쪽으로 나가 그랑프리 빌딩 5층에 있다.

| 문의 | 한국외식조리학원 부평본원 ☎ 519-2500 www.cik.co.kr

# 5대양 6대주가 한자리에 ... 세계 문화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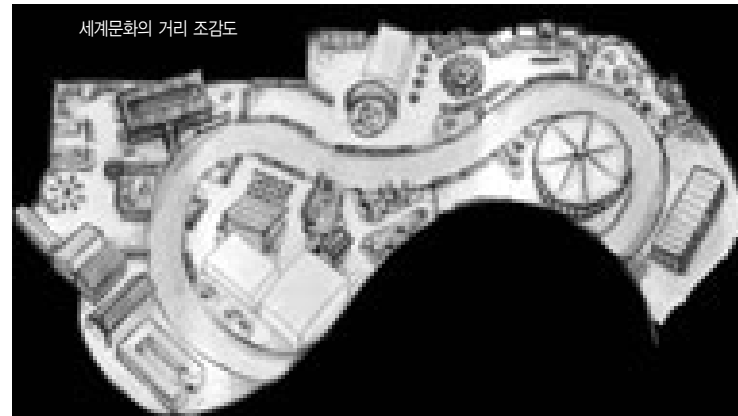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주행사장의 ‘꽃’은 무엇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다양한 도시문화를 선보이게 될 세계 문화의 거리다. 잊혀진 과거의 도시에서부터 현재 다양한 도시문화의 발생과 정과 현재 및 미래의 도시, 신개념의 도시문화를 한번에 맛볼 수 있는 세계 문화의 거리는 마치 ‘80일간의 도시여행’을 연상케 한다. ‘80일 간의 미래도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할 세계 문화의 거리로 여행을 떠나보자.

글 · 박세훈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 미디어홍보팀 부장

## # 동·서양의 문화를 만나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메가 이벤트 중 하나인 ‘세계 문화의 거리’는 주행사장 내 1만6천 529㎡ 넓이의 규모에서 진행된다. 와인축제 등 관광레저 분야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세계 문화의 거리는 문화의 다양성만큼이나 관람객의 다양한 취향을 자극하는 행사로 가득 차 있다.



세계 문화의 거리는 관람객이 몸소 대륙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아메리카 힙합과 아시아의 워터퍼펫, 이동식 극장, 퍼레이드 등의 공연위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중세 전쟁터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활궁을 쏘는 체험과 운명을 알아보는 타로점 등이 눈길을 끈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아프리카 문화도 소개된다. 색채미학의 진수인 은데벨레미술과 레게머리 땅기, 주술사의 집, 해나문신의 체험 등은 마치 관람객을 아프리카 모험가가 된듯 착각하게 만든다.

통나무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디언 가옥과 유럽의 아름다운 전원도시의 체험도 색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또다른 기회다.

이외에도 세계 문화의 거리에는 현지인이 진행하는 몽골문화촌과 사모아 문화, 터키, 마사이 시연 프로그램 등이 열릴 계획이다.

## # ‘세계 속의 나’를 깨닫게 하는 퍼레이드

세계 문화의 거리 공연은 관람객들의 흥을 돋우는 자극제다. 30~40분 동안 진행되는 퍼레이드 공연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하루 종일 계속된다. 특히 홀수일과 짝수일로 나눠 주행사장 좌우의 공간을 각각 행진하는 빅퍼레이드는 200m의 차량과 공연자 행렬로 장관을 연출할 계획이다. 빅퍼레이드에는 해외민속공연단과 각 대륙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내세운 플로트카, 컨셉트카가 동원되며 행진과 함께 스팟공연이 병행되어 선보인다.

해외전통공연단은 유럽과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 각국에서 파견된 52명으로 구성돼 현지인이 직접 악기연주와 댄스, 검투 등을 선보인다. 특히 삼바댄스와 거리악사로 유명한 멕시코 악사, 이집트 밸리댄스, 독일의 디시랜드밴드 등을 세계 문화의 거리에서 모두 접하는 색다른 기회가 제공된다.

퍼레이드에는 관람객들도 함께할 수 있다. 행사 주최 측은 매일 관람객을 추천해 퍼레이드카에 동승하는 기회를 선사할 계획이다.

공연, 전시를 즐기는 것 외에 민속예술품이나 의류, 장신구, 생활관련 용품 등도 구입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캐릭터 샵’에서 각 나라의 민속의류나 마케팅 용품 등을 구입하고 대륙별 주제관에서 현지인이 되어볼 수 있다.

## #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 파티 여행

세계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 세계 문화의 거리에 가면 대륙과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과 주류를 한 곳에서 모두 맛볼 수 있다. 우선, 세계 문화의 거리에 들어서면 화덕과 아프리카 전통 공예품으로 장식된 식당 ‘아마초마’가 관람객을 기다린다. 이 레스토랑은 아프리카 난장거리와 인접해 야외에서 바비큐를 즐기며 아프리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바비큐를 먹고 해나문신을 하고 레게머리를 땀은 후, 아프리카 동굴을 지나면 관람객도 ‘아프리카인’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인도의 난과 짜파티, 이집트의 에이슈, 피타, 샤미르브레드, 터키의 케밥, 유럽의 각종 특색있는 음식 등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80일 동안 역동적인 세계 문화를 선보일 세계 문화의 거리는 총 76명의 외국인 운영인력과 125명의 국내 전문운영진을 투입해 진행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퍼레이드 등 공연단의 규모만 해도 전세계 13개국에서 52명이 파견되며 음식 시연자도 9개국에서 14명이 참가해 진행하게 된다. 🍴



# 울긋불긋 오색단풍 알록달록 가을축제

하늘은 높고 공기는 청명한 가을.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인천에서는 각 군구별로 다채로운 축제가 열려 10월 한 달, 문화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글 · 정경애 본지 편집위원



## 천년의 기다림, 새로운 시작, 삼량성역사문화축제

- 기간 : 10월 4일(토)~12일(일) ■ 장소 : 강화도 전등사
- 문의 : 삼량성 역사문화축제조직위원회 ☎ 937-0125 www.samrangseong.org

단군의 세 아들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다는 전설이 깃든 곳, 삼량성. 수 천년을 이어 온 삼량성의 존재는 우리에게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라는 무언의 메시지이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삼량성역사문화 축제의 구호가 '천년의 기다림, 새로운 시작'인 이유이다.

10월 4일(토)에는 전등사를 창건한 아도화상부터 역대스님들에 대한 다례재를 통해 지난 천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같은 날 오후 1시에는 나라를 위해 스러져간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대재'가 이어진다. 불교의 음악, 무용, 미술, 의복, 음식 등이 복합된 종합 예술로서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50호에 지정된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 예술이다.



10월 5일(일) 오후 1시에는 중앙대 국악과 전수자들과 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예능 이수자의 춤과 노래로 우리 전통 음악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강화군립합창단 공연, 민족예술단 우금치의 '할머니가 들려주는 신화이야기-칠성신과 당금애기' 마당극이 펼쳐져 온 가족이 즐기기에 좋다.

이날 저녁에는 '화합과 상생의 천년 추억을 찾아가는 추억여행, 전등사 가을음악회'가 열린다. '가을 음악회'에는 안치환, 소찬휘 등 유명가수와 인천시립무용단 등이 출연해 가을밤 아름다운 산사에 어울리는 음악을 선사한다.

10월 12일(일) 오후 1시부터는 강화초등학교 관악부 연주와 덕신고 풍물단 공연 그리고 가야금과 에콰도르 민속음악 연주를 감상하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다.

이밖에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 각자 전수 동문전'과 '정족산삼량성 회화전', '생태사진전'이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현대미술조형연구회의 주관으로 전시되는 '강화별곡, 살어리 살어리랏다'는 강화도의 역사적, 신화적, 자연적 시공간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다.

아울러 화문석공예, 짚풀공예, 도자기 물레, 칠보공예, 단청 등 각종 체험 행사와 먹거리 장터, 지역 특산물 장터가 열려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해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역사문화 축제가 될 것이다.

## Flying to The Future, 인천공항 Sky Festival

- 기간 : 10월 17일(금)~19일(일) 예정 ■ 장소 : 공항청사 잔디광장
- 문의 : 시 항만공항지원과 ☎ 440-3373 www.iiafskyfestival.com

하늘은 높고 공기는 청명한 계절에 미래를 향해 비행하는 축제가 열린다. 우리시의 대표 브랜드인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한 인천하늘축제가 지난 2004년 시작돼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다. 올해 축제는 단순한 지역축제 이미지를 벗고 세계의 공항을 선도하는 공항 축제로 시민과 함께 한다. 학습과 체험, 공연이 어우러지는 문화 축제마당, 지역주민과 인천국제공항 방문객 등의 문화체험마당, 공항과 항공 및 물류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전시행사 등이 그것이다.

축제의 첫날은 'Sky Festival'과 'Sky Fashion Show'가 개막식으로 열린다. 초청 가수의 공연과 함께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직원들의 유니폼 패션쇼 등이 마련된다. 깔끔하고 단정하면서도 멋스러운 유니폼을 한껏 뽐내며 축제 분위기를 맘껏 돋운다.



둘째 날은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다. 신나는 공항 나들이를 주제로 하는 '어린이 사생대회', 재활용 자원을 이용한 작품을 만드는 'Green Airport 경진대회', 영종, 용유 주민들의 한마당 잔치인 'Sky 한마당', 지역의 특성화 사업 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이 공연되는 'Sky School Show', 공항 가족과 지역 주민들의 노래와 춤 솜씨를 뽐내는 'Sky Contest' 등으로 채워진다.

축제의 마지막 날은 '유소년 축구대회'와 하늘을 주제로 한 영화를 릴레이 상영하는 '영화 시사회' 등이 준비된다.

날마다의 축제도 즐겁지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상설 프로그램이 준비돼 더욱 신난다. 비행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Sky Academy', 열기구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는 'Sky Air Balloon', 에어바운스를 이용한 'Sky Playground', 항공우주관련 장비를 체험하는 '항공우주특별전시' 등은 어린이들에게 신비하고 즐거운 체험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조각협회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Sky Theme Park', 페이스페인팅, 키다리 뽀에로가 맞아주는 'Sky Garden',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World Culture & Food Town' 등이 축제를 감칠맛 나게 장식할 예정이다.

※ 자세한 일정은 본지 57쪽을 참고하세요





강화개천大축제

## 인천소래포구축제

- 기간 : 10월 2일(목)~5일(일)
- 장소 : 소래포구 및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
- 문의 : 남동구 문화홍보실 ☎ 453-2140 www.soraefestival.net

갯내음 물씬 풍기는 가을. 수도권 유일의 재래어항인 소래 포구에서 제8회 인천소래포구축제가 열린다. ‘싱싱한 해산물·포구의 낭만이 넘치는 소래에서 만나요’를 부제로 열리는 소래포구축제는 논현동 한화택지개발지구 내 수변부지 일원으로 축제 장소가 바뀌면서 개막식에서만 열리던 서해안 풍어제와 각종 전통공연들이 축제기간 내내 계속된다. 또 축제 장소가 넓어지면서 참여행사도 훨씬 다양하게 열린다. 새우젓 홍보관, 생선회 홍보관, 젓갈 담그기 체험관 등에서 해산물 요리, 젓갈 담그기, 망둥어 낚시, 장어잡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 자세한 일정은 본지 57쪽을 참고하세요

## 강화 개천大축제

- 기간 : 10월 3일(금)~5일(일)
- 장소 : 마니산 상설공연장 및 일원
- 문의 : 강화군 문화관광과 ☎ 930-3623

단군왕검이 단군조선을 세운 개천절을 기념하고, 강화의 마니산의 기(氣)와 참성단을 소재로 한 뜻깊은 행사가 열린다. 신념 있는 국가관 및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해 민족 자존심과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독특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 축제이다. 관광객을 제관으로 참여시켜 개천대제 봉행을 재현하는 한편 천지개벽 타악 공연, 마니산 등반대회, 건국신화 체험, 마니산 기(氣) 체험마당 등을 비롯해 강화 약쑥과 마늘 등을 먹는 ‘웅남 웅



인천소래포구축제

녀 콘테스트’도 벌어진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에는 강화 지역의 농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운영된다.

## 능허대축제

- 기간 : 10월 4일(토)~5일(일)
- 장소 : 옥련동 능허대공원 일대
- 문의 : 연수구 연수구축제추진위원회 ☎ 810-7761~4

지역 주민의 화합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역사·문화축제인 능허대축제가 올해로 다섯번째로 열린다. 축제의 무대인 능허대는 백제시대에 중국과 교류할 때 양국 사신이 나루터로 이용했던 곳. 축제에는 사신 맞이 퍼포먼스, 백제 의상 체험, 역사 퀴즈왕 선발대회 등과 각종 축하 공연이 마련된다.

## 이밖에

중구가 4~5일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와 11~12일 ‘원조자장면 축제’를 열고, 서구는 11~12일 ‘낙랑축제’를 강화군은 9~11일 ‘새우젓 축제’ 등을 잇따라 개최한다. ♡

# 베이징의 영광 인천아시아경기대회까지!



베이징의 인천영웅들이 돌아왔다. 우리시는 지난 9월 4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제29회 베이징올림픽 참가 인천소속 선수단 환영연’을 열고 인천 연고팀 소속 선수와 임원, 가족 등을 초청해 환영행사를 가졌다.

‘어게인 베이징’ 환영행사에는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 양궁의 박경모(계양구청), 야구 대표팀의 김광현, 이진영, 정대현(이상 SK와이번스), 동메달을 딴 여자핸드볼의 임영철 감독, 오영란, 김온아, 문필희, 김남선, 박정희(이상 벽산건설) 선수 등이 참석했다.

또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으나 끝까지 선전한 사격 김유연(남구청), 수영 임남균(인하대), 유도 김영란(동구청), 마라톤 김이용(대우자판), 축구 송유결(인천유나이티드FC) 등 선수와 임원, 가족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안상수 시장과 고진섭 시의회의장은 이날 베이징올림픽 출전 선수 및 지도자 전원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안 시장은 환영사에서 “베이징올림픽은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을 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2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해 우리나라의 기상을 세계에 알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인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준 시간이었다”며 선수단의 선전을 격려했다. 안 시장은 또 “베이징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인천체육이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영행사에는 이기상 체육회 부회장과 노순명 사무처장, 정의성 인천장애인체육회장, 이필주 벽산건설 핸드볼 팀 단장 등 체육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



1.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안상수 시장
2. 참가 선수와 임원, 그리고 체육계인사, 시 관계자등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한국의 오페라하우스 IFEZ 아트센터 기공

인천경제자유구역 아트센터(IFEZ Arts Center)가 지난 9월 11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첫 삽을 떴다.

아트센터는 오는 2012년까지 송도국제도시 1·3·6공구 일대 11만2천300㎡ 부지에 문화단지 5만6천300㎡와 지원단지 5만5천900㎡로 각각 개발된다.

문화단지에는 1천800석 규모의 메인콘서트홀을 비롯해 예술학교, 도서관, 기숙사 등이 들어선다. 또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설립하는



아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아시아오페라단, 시민문화프로그램, 음악·디자인아카데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단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아트센터개발주식회사(IACD)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6천677억원을 들여 호텔과 콘도, 프로덕션 스튜디오, 상업시설,

오피스 등으로 개발해 수익의 일부를 문화단지의 운영비로 지원하게 된다.

아트센터는 기공식을 시작으로 2009년 3월 지원단지 공사에 들어가고 2012년 3월 전체 단지를 완공할 계획이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 440-4052

## 신·재생에너지 종합단지 조성

수도권매립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종합단지가 조성된다. 환경부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후속 조치의 하나로 오는 201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종합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종합단지는 매립지 내 456만㎡ 부지에 사업비 1조7천여억원을 들여 ▲바이오에너지 타운 ▲태양광, 풍력 등 자연력에너지 타운 ▲폐기물에너지 타운 ▲환경 및 문화단지로 각각 조성된다. 계획대로 신·재생에너지 종합단지가 조성되면 수도권매립지의 수명이 지금보다 5배 정도 늘고 환경오염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시 에너지정책과 ☎ 440-4414

## 인천도시철도 복합문화공간으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역사 내 유휴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시는 인천도시철도 역사 내의 여유공간을 시민들이 문화 및 여가, 휴식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부평시장역을 마술공연이 열리는 마술역으로 조성하고, 계양역에는 소방안전 및 어린이 놀이 체험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청역에 교통안전 등 어린이 종합안전 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하철 5개 역사에 복합문화공간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시회를 비롯한 음악회 및 각종 문화·예술공연을 정기적으로 열 방침이다.

문의 | 도시철도건설본부 ☎ 451-2726

## 영종도 경제자유특별도시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영종도를 2020년까지 경제자유특별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리시는 '거래 가능한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경제특별도시를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138km<sup>2</sup>에 조성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제특별도시 정책은 세금이 없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금융자유화가 이뤄지고,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획대로 영종도가 경제특별도시로 조성되면 국가 경제성장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관광수익 흑자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동아시아의 신물류라인을 형성해 중국, 인천, 부산, 일본으로 이어지는 환황해권 경제벨트를 구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114

## 인천시, 지역경쟁력평가 'AAA'



우리시가 (주)매경리서치와 (사)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2008 MK지역경쟁력평가' 2개 부문에서 최우수 성적인 트리플 A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6개 지자체 가운데 ▲행·재정 및 공공자본 ▲인적자원 ▲생태·안전 ▲인프라·생산성 ▲세계화 등 5개 부문의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30개 지표에 대한 공적 심사와 주민만족도에 대한 조사로 이뤄졌다. 우리시는 이번 평가에서 특히 안상수 시장의 진취적인 시정활동이 부각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의 | 시 평가담당관실 ☎ 440-2115

## 남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우리시는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는 남미시장을 개척코자 시장개척단을 파견, 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창구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개척단은 지난 9월 8일부터 18일까지 칠레 산티아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브라질 상파울루 등 남미 3개국을 방문, 현지 기업과의 수출상담을 통해 910만 달러 상당의 상담실적을 거두었다. 또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참가와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등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52

## 2011년 송도에 무비파크 조성

2011년 송도유원지 일대에 영화 테마파크인 '파라마운트 무비파크'가 조성된다. 무비파크는 지난 9월 9일 열린 인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수도권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올해 안으로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리고 49만9천575㎡ 부지에 1조원을 들여 2011년 12월까지 개장할 계획이다. 무비파크는 파라마운트 게이트웨이, 키드 스튜디오, 스튜디오 센트럴, 팝존, 온 로케이션 등 5개 테마 존으로 구성된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114

## 아시아경기대회 국가별 담당관 위촉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지난 9월 10일 라마다송도 호텔에서 시 공무원 등 75명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국가별 담당관으로 위촉했다. 국가별 담당관은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5개 회원국 선수단을 위해 통역, 귀빈 의전, 안내, 국가별 연락창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가와 활발히 교류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조직위는 올 연말까지 국가별 담당관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과 문화·스포츠 소양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458-2323

## 국회에 아시아경기대회 자원 요청



홍종일 정부부시장은 지난 9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장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을 만나, 국회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주경기장과 선수촌, 미디어촌 건설의 타당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개정,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국비지원의 상향 조정 등을 요청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상임위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 440-4172

## 지능형 네트워크 로봇 도입

우리시는 지능형 네트워크 로봇을 시립박물관과 한국이민사박물관에 각각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한 로봇은 지식경제부의 네트워크 로봇 시범서비스사업을 통해 개발한 것으로, 방문객의 얼굴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갖추었다. 시는 지난해부터 첨단 로봇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시청과 경제자유구역청에 안내와 청소기능을 하는 인공지능형 로봇을 배치, 방문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의 | 시 과학기술과 ☎ 440-2812



## 시 대표단 美 순방, 축전 홍보·투자 유치



안상수 시장을 비롯한 인천시대표단 일행은 지난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국제행사를 홍보하고 투자유치

에 힘썼다. 대표단은 방인 첫날 시카고를 찾아 리차드 데일리 시카고 시장과 접견,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키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두 도시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둘째 날 뉴욕으로 이동 UN대사, 한인경제인 등과 만나 투자방안을 협의했다. 이어 넷째 날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고, LA로 이동 미주 동포의 최대 행사인 '한국의 날' 축제에 참석했다. 안 시장은 이 축제에서 명예로운 초대 손님인 그랜드 마샬로 추대 받기도 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52

## 장애인전용 체육관 조성

우리시가 2012년까지 장애인전용 체육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송도 LNG 기지와 선학체육공원 등의 후보지를 검토해 올해 안에 체육관 부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에 행정절차를 거쳐 2010년 체육관을 착공,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체육관은 면적 1만1천570㎡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367억원이 추산된다.

문의 | 시 체육진흥과 ☎ 440-5038

## 문학터널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우리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문학터널의 통행료 징수방식을 동전 납부에서 카드결제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시는 지난 8월 초부터 이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

완해 왔었다. 이번 카드시스템의 도입으로 운전자들의 편의가 높아져 문학터널의 통행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문학터널 ☎ 813-4038

## 동북아지자체연합 가입

우리시가 동북아시아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동북아지자체연합(NEAR)에 가입한다. 안상수 시장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서 열리는 동북아지자체연합 총회에 참석, 회원도시로 가입하고 우리시를 홍보할 예정이다. 동북아지자체연합은 동북아지역 광역자치단체들의 교류협력 국제기구로, 현재 동북아 6개국 65개 광역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3252

## 용유·무의관광단지 민관합동 개발

경제자유구역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PMC 개발이 추진된다. 경제청은 지난 9월 개발계획 수립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내년 5월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제청은 이에 앞서 용유·무의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기본협약을 체결한 캠퍼스키 컨소시엄이 SPC 설립 기간 준수와 외자 유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난 7월 말 기본협약 해지를 정식 통보한 바 있다. 용유·무의관광단지는 2020년까지 용유도·무의도 일대 21.65㎢에 총 80조원을 투자해 문화·관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초대형 개발프로젝트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 453-7114

## 인천지하철 연장선 역명 확정



우리시는 도시철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선 6개의 역명을 확정했다. ▲1정거장 캠퍼스타운 ▲2정거장 테크노파크 ▲3정거장 지식정보단지 ▲4정거장 인천대입구 ▲5정거장 센트럴파크 ▲6정거장 국제업무지구 등이다. 송도국제도시 연장선은 현재 인천지하철 1호선 종점인 동막역과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6.5km 구간으로 내년 8월에 개통할 계획이다.

문의 | 도시철도건설본부 ☎ 451-2726

## '우리는 한가족' 행사 열려

글로벌 패밀리 데이 '우리는 한가족' 행사가 지난 9월 13일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이주 외국인과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리는 한가족' 행사는 이주 외국인간에 친목도모와 정보교환의 장을 열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인천국제친선문화교류협회는 우리시 최초의 풀뿌리 국제화 시민단체로, 김용구 전(前) 시의원이 이사장을 박승희 시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아 글로벌 인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문의 | (사)인천국제친선문화교류협회 ☎ 522-0545

## 시 진·출입 경관 품격있게 조성

우리시는 내년 7월까지 세계 일류 명품도시에 적합한 도시 진출입경관을 조성키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시는 시내 주요 교차지점과 대표 시설지에 상징조형물을 세우고, 공공부지에 조경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공간을 연출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디자인개발을 마무리하고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시 도시경관과 ☎ 440-4475 7

## 검단·강화에 일반산업단지 추진

우리시가 정부의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완화 구상에 맞춰 일반산업단지 두 곳을 추진한다. 우리시는 오류동 검단산업단지 추가분 1.98㎢와 강화군 일대 1㎢를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키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시는 또 입지타당성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협의 등을 위해 시 관련 센터를 운영하고,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문의 | 시 개발계획과 ☎ 440-4655

## 통합환승제 내년 4월 시행



우리시가 내년 4월부터 통합환승제를 시행한다. 통합환승할인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행 거리를 합산해 기본구간에서는 기본요금만 내고, 이를 초과하면 일정 거리당 100원씩 추가로 내는 거리비례요금제 방식이다. 통합환승제의 시행으로 인천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을 오갈 때 요금을 따로 내지 않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통합환승할인제의 도입에 앞서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포함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문의 | 시 버스정책과 ☎ 440-3822

## 정책실명제 도입

우리시가 지난 9월부터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정책실명제를 도입,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각종 계획서와 보고서를 비롯한 모든 책자에 실명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주요 정책에 대해 실명제 리스트를 만들어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실명제를 구·군 합동평가 항목으로 지정해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과 조례·규칙 제정 등에 대해서 매년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국가기록원에 제출키로 했다.

문의 | 시 평가담당관실 ☎ 440-2147

## 친환경도시, 에코 프랜들리 존 조성

우리시의 환경이 친환경적으로 개선된다. 우리시가 지난 9월 4일 에코 프랜들리 존(Eco Friendly Zone) 최종 기본계획 보고회에서 환경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친환경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에코 프랜들리 존 조성사업은 인천항, 동구 송현동, 남동산업단지 등 우리시의 환경 취약지역 10개를 선정,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시는 이들 지역의 도로 시설물을 정비하고, 경관시설, 이미지 조형물, 친수시설 등을 설치하며, 악취와 먼지오염 등을 개선하게 된다.

문의 | 시 환경정책과 ☎ 440-3514

## 하수처리시설 준공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지난 9월 18일 중구 신흥동에 준공됐다. 지난 2005년 8월에 공사를 시작한 하수처리시설은 중구, 남구, 연수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12만5천t을 매일 처리하게 된다. 총 2천219억원을 투입한 이번공사에는 면적 18만6천㎡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장 10.9km의 하수관로가 설치됐다. 특히 하수 처리 구조물을 지하에 들이고 악취제거 시설을 설치해 악취가 덜 나도록 했다. 또 환경정보센터와 생태공원 등을 설치해 환경 관련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문의 | 시 물관리과 ☎ 440-3645



## 웰컴 투 인천 · 인천을 방문한 VIP 이모저모

## 프놈펜시와 자매도시 MOU



우리시는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시와 지난 9월 9일 자매도시 결연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안상수 시장과 켄 추크 테마 프놈펜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향후 경제 · 통상 · 문화,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안 시장은 또 이 자리에서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프놈펜시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프놈펜시의 도시개발 사업에 우리 지역의 업체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태국 교육부 차관일행 방인

태국 교육부 쉐라텡 판쁘라선 차관 일행이 지난 8월 29일 우리시를 방문했다. 태국 교육부 방문단은 이날 시 홍종일 정부부시장과 시의회 유천호 부의장을 예방하고, 경제자유구역과 월미도 전통공원을 시찰했다. 홍 정부부시장과 유 부의장은 태국 방문단에게 우리시가 2014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도록 지지해준 데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우리시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시와 방콕시는 지난해 8월 우호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이래 협력관계를 돈독히 유지하고 있다.

## 美공화당 유력인사, 국제고문 위촉



미국 공화당의 유력 인사인 손 스틸 변호사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고위 선출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미셸 박 스틸 부부가 시 국제고문으로 활동한다. 지난 9월 12일 손 스틸 부부는 우리시를 방문, 안상수 시장을 예방했다. 그리고 각종 국제행사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고문으로 위촉됐다.

## 캄보디아대사 일행 방문



림 삼콜 주한 캄보디아대사가 지난 9월 5일 우리시를 방문, 안상수 시장을 예방했다. 안 시장은 이날 림 삼콜 주한 캄보디아대사 일행에게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림 삼콜 대사는 우리시에서 열리는 행사에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우리시가 지난해 '2014 드림프로그램'에 캄보디아 양궁 국가대표 선수단을 초청, 훈련을 받도록 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 뉴욕 · 뉴저지 한인상록회 방인



뉴욕과 뉴저지 한인상록회 회원 43명이 지난 9월 10일 우리시를 방문, 안상수 시장을 예방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 시장은 해외 동포들의 방문을 환영하고 오는 11월에 출범하는 세계한인경제연구원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한인상록회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우리시의 현안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방문단은 또 안 시장과의 환담후 경제자유구역 홍보관, 자유공원, 이민사 박물관 등을 방문, 세계도시로 도약하는 우리시의 비전을 직접 확인했다.

## LA 한인회 경제협력단 방문

미국 LA한인회 경제협력단 20여 명이 지난 8월 31과 9월 1일 이틀간 우리시를 방문, 우리시의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안상수 시장을 예방했다. LA한인회 경제협력단의 이번 방문은 LA에서 개최하는 한인축제를 홍보하고 경제협력을 논의키 위한 것이다. 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스칼렛 엄 회장의 제29대 한인회장 취임과 재외동포의 모향인 우리시의 방문을 축하했다. 이어 세계한인경제연구원을 기반으로 우리시를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 440-2852

## 군 · 구 소식

## 중구 중국어마을 조성 가속화

중국어마을 조성과 한중문화 교류가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고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구 대표단은 지난 9월 11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국 국제문화전파중심의 용우상 집행주석 등과 중국어마을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지원을 약속 받았다.

문의 | 중구청 ☎ 760-7114

## 동구 도시축전 성공기원 전시회

동구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고자 성공기원 전시회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구는 청내에 축전의 성공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기록판을 전시하고 있으며, 향후 다중집합소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문의 | 동구청 ☎ 761-0151

## 남구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유치

2009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남구에서 열린다. 지난 9월 18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지 심사에서 남구가 최종 결정됐다. 2001년에 시작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주민자치센터 관련 전국 최대 규모의 행사로, 인천의 발전상을 알리는 홍보의 장이 될 것이다.

문의 | 남구청 ☎ 887-1011

## 연수구 업무용 자전거 도입

연수구는 에너지를 절약코자 업무용 자전거 130대를 도입, 직원들이 출퇴근과 출장 시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구는 이를 앞두고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자전거 보관대를 마련하고 공기 주입 펌프를 설치했다. 구는 이와 함께 자전거 도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연수구청 ☎ 817-1011

## 남동구 산업단지에, 비즈니스센터

남동구 남동산업단지에 중소기업인들의 복지를 증진키 위한 종합비즈니스센터가 조성된다. 센터는 고잔동 일대 6천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로 세워지며, 오는 201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8월 25일 착공에 들어갔다.

문의 | 남동구청 ☎ 466-3811

## 부평구 인천평생학습축제 개최

제7회 인천평생학습축제가 지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평구청과 북구 도서관 일대에서 열렸다. 축제에는 인천평생학습기관 등 70여 개의 단체 및 기관을 비롯해 지역 주민 등 7만5천여 명이 참석했다.

문의 | 부평구청 ☎ 527-5911

## 계양구 경관형성 종합평가 최우수

계양구가 '2008년 군 · 구 경관형성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차지했다. 경관기획, 건축물이미지개선, 도시디자인, 도로경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경관담당 공무원들의 조직정비력과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문의 | 계양구청 ☎ 551-5701

## 서구 찾아가는 영어마을 운영

서구는 '찾아가는 영어마을'의 운영을 재개했다. 찾아가는 영어마을은 영어마을 소속 원어민 강사와 내국인 강사들이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해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11개 초등학교 약 3천여 명의 학생과 25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한 바 있다.

문의 | 서구청 ☎ 562-5301

## 강화군 약쑥 테마시설 조성

강화군은 강화약쑥 테마시설인 '강화아르미에월드'를 조성,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르미에월드는 농특산물의 생산, 연구, 유통, 체험관광이 융합된 농촌테마관광지로 조성된다.

문의 | 강화군청 ☎ 930-3114

## 옹진군 '면민의날' 행사

'면민의날' 행사, 백령도 평화축제가 지난 9월 11일 백령도 사곶해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운길 옹진군수를 비롯해 섬주민들이 참석해 화합 도모의 장을 열고, 통일을 기원하고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다.

문의 | 옹진군청 ☎ 899-2114

## 교육청소식

## 전국 도서관대회 개최

오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송도국제도시 컨벤시아에서 제6회 전국 학교도서관대회가 열린다. 대회에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리고, 16개 시 · 도 교육청별 학교도서관 전시 · 체험 코너가 운영된다. 또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4개 초 · 중 · 고교의 학교도서관을 둘러보고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지역의 명소나 유적지 등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의 | 인천시교육청 홍보팀 ☎ 420-8225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News

## 시의회 소식

### 여객선 운임 50% 지원 기념식

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9월 1일 연안부두 여객터미널에서 고진섭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기념식이 열렸다. 여객선 운임지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되는 것으로, 인천시민이 웅진군 전 도서와 강화군 외포·주문·볼음·아차 등 총 14개 항로를 이용할 경우 현행요금의 50%만 지불하면 된다.

### 도시축전 성공개최를 위한 토론회 개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각 사회단체장과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원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 오홍식 사무총장의 '도시축전의 성공적 추진 방안' 주제발표와 함께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 제168회 임시회 진행



인천시의회 제168회 임시회가 지난 9월 18일 개회식을 갖고 10월 1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지난 7월 말 제167회 임시회를 끝으로 2개월 가장 하한정국을 가진 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고진섭 의장 체제의 본격적인 2기 활동에 들어갔다. 다음은 제168회 임시회에서 다룬 각 상임위별 주요 안건이다. ▲기획행정위원회 : 내년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UN LGA/DRR(재난위험경감 세계지방정부연합) 국제회의의 개최 계획안을 심사하고, 필리핀 마닐라시와 캄보디아 프놈펜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했

### 시, 군·구 공무원 대상 특별강연

기획행정위원회 윤지상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공무원교육원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시의회와 시, 군·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강연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토론행식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고,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 함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공무원들과 더 활발히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며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 이와 함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다.

▲문교사회위원회 : 정부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설 등을 위한 기본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지원사업 심사 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안건을 다뤘다. 또 민간 위탁되는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고 시립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산업위원회 : 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에 따른 개발계획안과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안을 심사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일부를 금융중심지로 지정 신청하기 위한 개발계획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건설교통위원회 : 시가 의무적으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도록 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사가 이뤄졌다. 또 검단신도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됐다.

### 예결특위·윤리특위 구성

지난 9월 1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예결위원장에는 노경수 의원이, 윤리특위위원장에는 조남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 예결위는 노경수, 이명숙, 박승희, 김소림, 김용재, 김을태, 배영민, 오홍철, 최만용, 박희경, 성용기 의원 등으로, 윤리특위는 조남휘, 허식, 지정구, 김소림, 강문기, 박희경, 최병덕, 배영민, 이병화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상 예결위·윤리특위 위원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으며, 활동기간은 내년 7월 16일까지다.

문의 | 인천시의회 홍보팀 ☎ 440-6052

고진섭 의장 체제로 원을 새롭게 구성한 인천시의회가 제16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제5대 2기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철 위원장과 기획행정위원회 윤지상 위원장의 의정활동 포부를 들어본다.

## “살아 있는 의정활동 적극 펼치겠습니다”

### 신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봉사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와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설득하며 견제,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두고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것인가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위원회이므로 시의회의 의견을 통합·조정해 대변토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활발히 열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각종 국제행사의 개최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복지의 증진입니다. 도시개발과 사회복지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시의회가 살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조화로운 도시발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

### 신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중책을 맡겨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요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정 전반의 기획조정과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이므로, 시정을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특히 시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님께서 꿈꾸시는 인천의 미래는 무엇인가요

인천은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도시재생사업 등 시의 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부와 시의회,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신도심과 구도심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도시, 외형보다는 내실을 중시하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인천의 미래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철 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윤지상 위원장



# 인천의 국제적인 복합운송기지 전망 밝다



최근들어 인천의 Sea & Air 복합운송 분야 발전 전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인천이 과거 수입항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동북아를 대표할만한 국제적인 복합운송기지 중 하나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글 · 이상원 물류학 박사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 주관으로 지난 8월 22일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08년도 인천지역 심층 토론회 인천지역 복합운송 발전 및 정책 과제’에 참석한 인천 지역 선사, 하역업체, 학계 관계자, 공무원 중 누구도 인천의 국제적인 복합운송기지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았다. 몇년 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인천항의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인천이 복합운송기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데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국제적인 ESC(Export Supply Chain)상의 구조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국내 지가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노동시장이 크게 경직됨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이 90년대 이후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인천항이 2000년대 들어 대 중국 물량

수입 창구로서의 역할이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세계 최대 제조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자국 제품을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 등으로 수송하기 위한 다양한 해상과 항공 루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천이 해상과 항공 루트를 연결한 최적 후보지 중 하나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기존 중국 동중부와 동남부 지역과 미국을 연계한 해상수송 루트는 잘 발달되어 있지만 최근 공업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중국의 북동부 지역과 미국 등을 잇는 수송 루트는 개발을 제대로 못한 상태다.

중국 동북부는 앞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산업, 정밀공업 등 투자 가치가 높은 산업들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따라서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제품 중 상당수는 지금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결합한 복합운송 방식으로 미국과 유럽으로 운송되는 물량이 크게 늘고 있다.

예컨대 일본 소니사는 지난해부터 중국 현지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 중 일부를 인천항까지 해상으로 운반한 뒤 인천공항에서 항공을 이용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들어 기존 인천항과 중국을 연결하는 카페리를 이용한 RFS(Road Feed System) 물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인천국제공항의 잠재력이 중국 공항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미주(미주 24개 도시, 주당 2천800여 편)와 유럽을 향하는 항공편이 중국의 어느 공항보다 많으며 한국 항공사들은 화물 운송료가 일본 항공사들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베이징 공항과 푸둥공항 등 중국 공항들은 공항 자체가 여객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화물처리가 늦는데다 미국과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항공편이 인천공항보다 크게 적다.

그러나 인천이 국제적인 복합운송 기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정부와 인천시 차원의 인천신항 개발 등 항만시설 확충,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연계한 교통망 개선 등이 시급하다. 기존 내항 체계로는 중국에서 해상으로 오는 컨테이너 화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인천신항 등 컨테이너 전용 외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또 한중간의 컨테이너 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영종대교, 내년 완공 예정인 인천대교 이외에 제3 연륙교를 시급히 건설하고 인천공항 인근에 항만을 건설하는 방안 등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텐진, 센양, 칭다오 등의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 경제특구에 기반을 둔 업체들을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과 물류단지 등으로 집중 유치해 이들에게 관세, 통관 절차, 행정 지원 등을 제공하는 등 물류 연계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하겠다. 인천이 앞으로 국제적인 복합운송 기지로 발돋움하려면 현재 중국 발 미국 착 Sea & Air 평균 소요 시간을 현재의 3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인천이 이같은 역경을 딛고 수년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는 국제적인 도시답게 동북아를 대표하는 복합운송기지 중 하나로 힘차게 발돋움하기를 기원해 본다. 🐦



국내 제3자물류기업(3PL)의 효율성을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이용해 심층 분석한 박사 학위 논문이 나왔다. 이 논문은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기법을 이용해서 3PL 업체를 분석한 국내 최초 논문인데다 물류 분야에서 보기 드문 영어 논문으로 주목받고 있다.

논문을 쓴 주인공은 현직 문화일보 인천주재기자인 이상원(사진) 씨. 그는 지난 8월 ‘Evaluating and Benchmarking the Productivity of 3PL Providers with Multi-stage DEA(다단계 DEA를 이용한 제3자 물류기업의 생산성 평가와 벤치마킹)’이라는 논문으로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에서 물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즉 우리나라 3PL 업체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인증종합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2007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기반으로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정의한 후 DEA기법을 이용해서 상대적 성과를 측정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씨는 논문 작성 배경에 대해 “국내 3PL업체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업체로 성장하려면 재무적인 측면에서 어떤 효율성을 높여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 씨의 주요 저서로는 물류관리론(공저, 도서출판 범한), 3PL 이렇게 공략하라(공저, 도서출판 범한) 등이 있다.



# 뚱뚱한 남성 ‘고개 숙일’ 가능성 높다



오늘날 비만은 곧 병이라는 인식까지 퍼져 있는데 살이 찌서 비만해지면 생기는 질환 중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중성지방, 고밀도 지단백질, 혈압, 공복혈당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대사증후군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최종 합병증으로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 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사 증후군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이 대사증후군이 남성의 성기능 장애와 관계가 있다는 증거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대사증후군 위험인자가 많을수록 발기부전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비만이 심할 경우 남성 성기능 장애나 성욕감퇴가 올 수 있는데 이는 외형상의 콤플렉스로 이성에게 성적매력을 끄는 힘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결여되는 심인성이 원인일 수 있다. 또한 비만인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것도 원인일 수 있다. 아울러 비만 또는 비만으로 인한 질환의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제들이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의 20~75세 남성 9천명을 조사한 연구에서 한국 남성의 발기부전 유병률은 4개국 중 가장 많은 40대 7%, 50대 15% 수준이었다. 대사증후군인 사람들 중에서는 발기부전이 40% 정도 있는데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발기부전이 24% 정도라는 연구가 최근에 있었다.

발기부전의 중요성은 단순히 발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심혈관 질환의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발생하는 초병 역할을 담당한다는 데 있다. 이제는 성인병 때문에 발기부전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발기부전을 혈관질환의 시작단계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음경혈관의 직경은 평상시 0.5mm였다가 발기하면 약 0.7mm가 되는데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등으로 혈관의 동맥경화가 촉진되면 가장 먼저 가늘고

예민한 음경혈관에서 문제가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발기가 장애를 받는다는 것은 혈관계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발기부전이라고 밀쳐두지 말고 발기부전이 보이면 신체 전반에 걸친 생활양식을 참살이(Well-Being)로 바꾸는 기회로 받아들이면 좀더 윤택한 삶이 될 것이다.

첫째, 비만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체중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 듀크대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결과 일주일에 6일, 하루 단 30분만 걸어도 대사증후군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 저녁 식사후 동네 주위를 걷기만 해도 체중을 줄이고 혈압 개선과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당뇨병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둘째, 올바른 식사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탄수화물 섭취를 전체 칼로리의 5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좋다. 또 단순 다당류의 탄수화물보다는 정제하지 않은 곡류로 만든 빵이나 제빵, 현미가 좋다. 이를 통해 칼로리를 감소시키고 저지방을 유지해 복부비만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과음과 담배를 멀리 해야 한다.

넷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정신적·육체적 환경을 잘 조절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남성 호르몬을 측정하여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것으로 측정될 때 남성호르몬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하자. ♡



글 · 박태희 인천광역시의료원 비뇨기과 과장

## 독서의 계절

안방 청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보니 소파 위에 3살된 둘째가 4학년 형아 위에서 나란히 독서를 하고 있어 독서의 계절을 실감케 하네요. 흐뭇하고 대견스러운 마음에 가까이 가보니 두 녀석 다 만화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네요. 나~원~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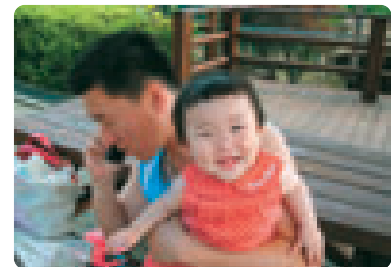
노재경 | 연수구 송도동



## 나도 박지성

2002년에 태어난 유치원생들이 2002년 한 일 월드컵 16강의 성지인 문학경기장의 박지성 선수가 골인시켰던 지점에서 슛팅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도 열심히 축구 연습을 해서 박지성 선수같은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어야지.'

한기성 | 남구 용현5동



## 아빠와 개구쟁이

딸아이가 어찌나 악동인지,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진 찍는다고 “태희야 김치”했는데 다행히도 웃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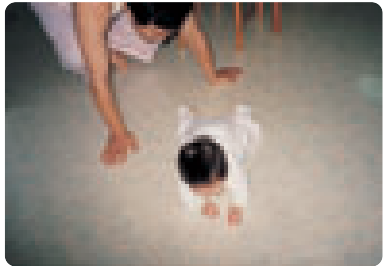
이순정 | 남동구 만수4동



## 누가 누가 닮았나

아빠랑 딸이랑 자는 모습도 정말 똑같죠? 얼마나 닮았는지 보여주려고 이런 포즈를 취했나봐요. 2월에 태어난 우리딸 벌써 7개월이 나 됐네요.

오영미 | 서구 가좌4동



## 반가운 딸

주말부로 떨어져 지내다 내가 오는 날이면 아이는 신기하게도 문을 열자마자 나를 쳐다보며 짹짜게 내게로 다가왔다. 그 모습이 신기해 사진을 찍어 놓았다. 일주일 내내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을까. 그저 속상하고 가슴 아픈 현실. 평범한 사진 같지만 나에게겐 가슴 찡한 기억이다.

이미선 | 남동구 구월동



## 경찰관이 되었음을 신고합니다

어때요? 제 모습 정말 멋지죠? 경찰박물관에서 경찰차도 타보고 오토바이도 타보았어요. 또 긴 장화를 신고 모자도 쓰고 벡타이를 매니 꼭 경찰이 된 기분이었죠. 이 다음에 커서 저도 꼭 경찰관이 될게요.

구영웅 | 서구 가정동

## 장원에 도전하세요

<굿모닝인천>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사진을 공모합니다. 주제는 따로 없으며 계절에 맞는 추억의 사진이나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 사연이 담긴 사진 등이면 환영합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100자 이내)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특히 응모하신 작품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좋은 사진은 장원으로 뽑아 문화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 미술관으로

도시역사를  
바꾸다

스페인 북부에 위치한 빌바오시는 스페인의 중요한 항구이다. 게다가 빌바오 공항이 프랑스와 가까이 있어 유럽으로 가는 교통의 중심이며, 금융 중심지이기도 하다. 인구 35만명으로 도시의 규모는 작지만 공항과 항만을 두루 갖춘 여러 가지 입지조건들이 인천과 많이 닮아 있다. 아름다운 열정과 문화가 깃들여 있는 이 도시를 지난 여름 다녀왔다.

글 · 사진 강정란 인천시 도시경관위원 · 디자인전문회사 (주)아르필 대표

## 세계도시의 벤치마킹 모델

인천과 서울 등이 벤치마킹의 훌륭한 모델로 삼고 있는 빌바오. ‘미술관 하나로 이룬 기적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을 처음 접한 건 신문기사에서였다. 쇠락해가는 탄광 공업도시를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를 통해 단숨에 문화 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킨 빌바오를 언젠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꼭 가야겠다는 결심으로 바뀌었고, 드디어 긴 휴가로 결행했다. 이왕 나선 길이라 바르셀로나에 먼저 들러 가우디의 아름다운 건축유산을 체험하며 바쁘게 빌바오행 기차에 올랐다. 12시간의 기차여행 끝에 빌바오에 도착한 것은 이른 새벽이었다. 막상 와서 보니 인구 280만의 인천에 비하면 인구 35만의 빌바오는 정말 작은 도시였다. 그 때문이었을까, 빌바오를 향해 달려온 여행이었지만 정작 빌바오에 도착해서는 그리 급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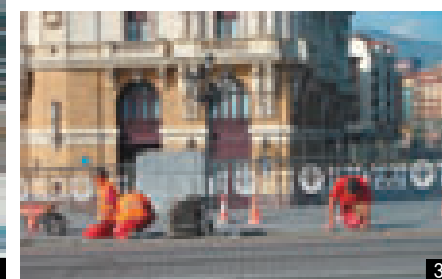
빌바오를 가로질러 네르비온 강이 흐르고, 그 강가를 따라 거닐면 천재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스비스리(하얀 다리라는 뜻), 일본인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가 디자인한 25층의 쌍둥이빌딩, 조각가 루이스 브루주아의 거미 등 현대적인 건축물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예쁜 경치들을 볼 수 있어 마치 도시가 아름다운 야외전시장 같은 느낌이었다. 한 가롭게 흐르는 강 언저리에는 야외공원이 있고, 사람들은 깊은 그늘 아래서 그림을 그리고 조깅을 하고, 아이들과 한 가롭게 햇살을 즐긴다.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는 아름다운 네르비온 강은 10년 전만 해도 탄광촌의 폐기물이 넘쳐나는 죽은 강이었다. 빌바오시는 강을 살리기 위해 15년간 약 7억 유로(1조원)를 투자해 물고기가 노니는 강으로 되살렸다고 하니 환경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가히 필사적이었고 할 만하다. 내가 머무는 동안에도 수시로 강물을 정화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빌바오의 기적을 이룬 구겐하임 미술관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술관만이 아닌 빌바오란 도시의 매력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 미술관 구겐하임, 빌바오의 상상력

네르비온 강을 타고 초록색 기차 트램이 푸른 잔디를 가로질러 구도심을 이어준다. 걸어도 될 만한 거리지만 추억이 될까하여 트램을 타고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멈춰 섰다. 멀리 보이는 정오의 햇빛을 머금은 구겐하임 미술관은 현실이 아니라 SF영화의 우주선기지 같았다. 이것을 보려고 그 먼 길을 달려왔다고 생각하니 매우 감동적이어서 단번에 가까



1.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디자인한 네르비온 강가의 ‘스비스리’ (하얀다리라는 뜻)
2. 네르비온 강가를 중심으로 한 도시전경
3. 도시를 정비하는 현장





4



5

4. 빨간색의 빌바오 시내버스  
5. 청소차와 태양열 방열판을 부착한 가판대



6

이 다가가기가 두려웠다. 다시 온 길을 뒷걸음치니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육교가 보인다. 중앙에서 미술관을 보고 싶어 그 다리에 올랐다. 교각은 항해를 나선 배의 돛처럼 아름다운 선형으로 디자인되었고, 바닥은 유리블록으로 만들어져 그 위에 선 것만으로도 극적인데, 아까 본 구겐하임이 하나의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모습으로 다시 그곳에 있으니 감동이 아닐 수 없다.

성스러운 의식을 행하듯 복잡한 감동을 섞어 다리를 건너 구겐하임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차로와 뒤엉키지 않은 자전거 도로, 태양열을 설치한 가판대, 잘 정돈된 쓰레기 분리수거함, 사람처럼 내달리는 교통신호등, 깔끔한 디자인으로 누가 보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간이화장실... 시민에 대한 배려에 경탄할 즈음 다시 구겐하임 미술관이 눈에 들어왔다. 시간을 머금은 물고기의 비늘과 같은 모습은 이내 항구에서 출항하는 뱃머리와 파도의 일렁임으로 탈바꿈하여 역동적이며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다가왔다.

오늘의 빌바오를 있게 한 구겐하임 미술관은 자유와 창조의 디자인을 실천한 위대한 건축가 프랑크 게리가 설계한 작품이다. 비행기 외장재로 쓰이는 티타늄 삼만 삼천 조각과 석회석, 유리로 만들어진 설계를 시작한 지 7년여에 걸쳐 완성된 조형물 같은 건축물이다. 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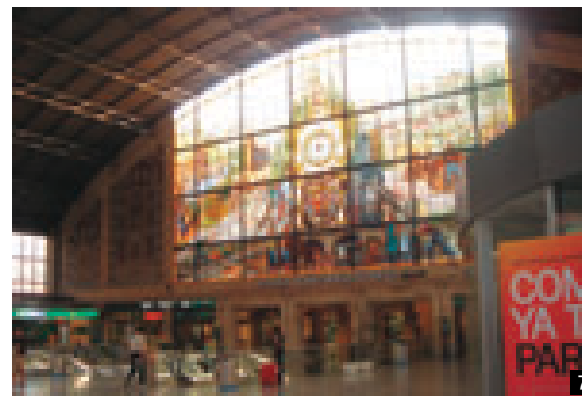
과 삼각뿔 등을 이리저리 이어붙이 것 같은 미술관 건물엔 기둥하나도 똑바로 수직으로 올라간 것이 없다. 미술관 앞뒤에는 이미 미술관의 상징물이 되어버린 거대한 꽃과 나무로 뒤덮인 강아지(토마스 쿤 작)와 거미(루이 부루조아 작)가 지키고 있다.

빌바오에서는 어디를 가도 미술관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다. 은빛으로 반사되는 아름다운 항해의 주인공, 그를 통해 도시가 빛나보였다. 피어오르는 꽃 봉우리 같기도 하고, 막 항해를 시작하려는 함선과도 같아 보이는 그는 햇빛을 머금어 금빛으로 다가왔다가 해가 지면 이내 은빛 물고기의 지느러미 형상으로 옷을 갈아입고 매 순간마다 다른 이야기를 만들며 상상력을 자아내게 한다.

### 참여와 소통으로 빛은 빌바오 기적의 교훈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소도시인 빌바오는 15세기부터 철강소, 제철소, 조선소 등이 발전된 공업도시였다. 그러나 1980년대 주력 산업인 철강업이 붕괴되면서 실업률이 25%까지 치솟는 등 '쇠락의 도시'가 됐다. 오염된 강 옆으로 보이는 낡은 공장은 절망의 상징이었다. 1991년 바스크 지방정부는 상상력의 전환을 선택했다. 빌바오 도심재생 프로젝트의 핵심은 항만·창고 용지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는 것. 이듬해 스페인 중앙정부와 바스크 지방정부가 공동 출자한 빌바오 리아2000(Bilbao Lia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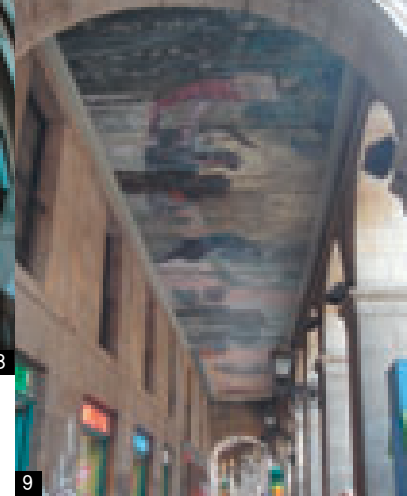
6. 꽃과 나무로 뒤덮인 강아지, 구겐하임 미술관의 상징물이 되었다(토마스 쿤 작)  
7. 아반도 기차역의 유리벽화  
8. 노만 포스터의 작품인 지하철역  
9. 구도심 거리의 천정벽화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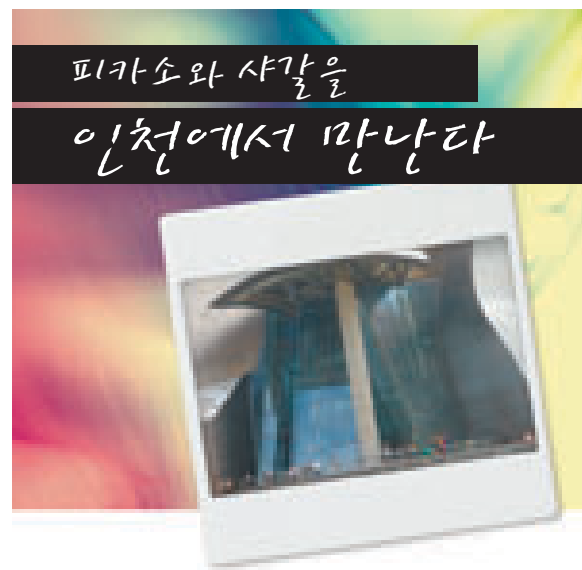
9

이 발족한다. 당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는 데는 1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해 시민들의 반대여론도 거셌다고 한다.

그러나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빌바오는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탈바꿈했다. 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이 개관하고 도시 전체에 공공디자인을 도입해 문화 도시로 개조하면서 지난 10년간 986만명이 다녀갔고, 관광객이 쓴 돈만 16억 유로(약 2조 1천억원)가 넘는다. 이후 위대한 건축물을 통해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문화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례를 일컬을 때 이른바 '빌바오 효과'란 용어가 생겨날 정도이니 대단한 성공이 아닐 수 없다. 미술관 자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세계적인 명물이 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은 빌바오를 문화도시로 변신시킨 주인공임에 틀림없지만 미술관 하나로 오늘의 빌바오의 기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빌바오 시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짓기 전에 이미 세자르 펠리에게 도시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설계하도록 하였고, 노만 포스터의 작품으로 지하철역을 단장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의지가 함께 했다.

한 도시의 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일까. 질서 있는 깨끗한 거리와 아름다운 간판, 구도심의 천정벽화, 네르비온 강가의 작은 야외공연장, 그리고 노만 포스터가 디자인했다는 지하철역과 빨간색 빌바오 버스, 무엇보다도 곳곳에서 눈에 띄는 환경미화원과 공사 현장에서의 밝은 미소는 시민이든 관광객이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매력이 넘쳐나고 있었다. 곳곳의 그늘에 마련된 벤치와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는 아름다운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루어 이곳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은유적으로 말해준다.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공공디자인의 실천이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빌바오의 기적과 함께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제비의 모양을 닮았다는 빌바오 공항(칼라트라바라는 건축가의 작품)을 떠나며, 항구와 공항이 함께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인천과 많이 닮아있는 빌바오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값진 교훈을 떠올렸다. 🐦



피카소와 샤갈을

인천에서 만나다

구겐하임은 1937년 미국의 철강업자 구겐하임이 설립하고 1943년 건축가 Frank Lloyd Wright가 설계해 1959년 미국 뉴욕에 현재의 건물을 완공한 세계적인 미술관이다. 피카소, 샤갈, 칸딘스키 등의 작품과 현대미술품을 주로 전시하고 있으며 한 해에 6천3백만 달러의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다. 구겐하임은 뉴욕 본관뿐만 아니라 빌바오, 베니스, 베를린, 라스베이거스에도 분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건설하고 있는 분관은 2013년에 개관할 예정이다. 우리시는 세계 유일의 갯벌미술관으로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해 자연과 조화를 이룬 세계적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할 예정인 구겐하임 미술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문화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시는 그동안 구겐하임 재단측과 미술관 건립을 협의해 왔고, 구겐하임 재단 이사회에서도 갯벌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콘셉트로 인천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섬, 항구, 갯벌 ... 인천은 영.화.다

바다와 섬 그리고 공항과 항구를 지닌 인천은 영화감독들이 손꼽는 로케이션이다. 카메라 앵글을 어디에든 맞추기만 하면 원하는 ‘그림’이 쉽게 나온다. 특히 2006년에 인천영상위원회가 발족된 후 영화인들의 발걸음이 잦아졌다. 올 가을 영화가를 접수한 ‘영화는 영화다’ ‘미쓰 홍당무’도 인천영상위원회의 도움으로 우리 지역을 배경으로 찍은 영화이다.

글 · 유동현 본지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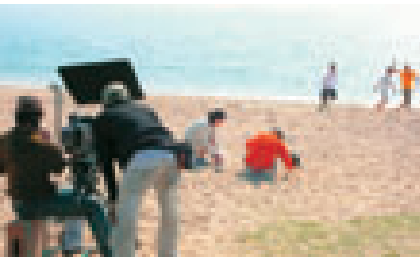
## 영화보다 더 멋진 인천대교의 실루엣

장훈 감독의 <영화는 영화다>는 현실과 허구 사이를 넘나드는 르와르 풍의 영화다. 배우의 꿈을 가진 잔인한 깡패와 진짜 깡패보다 더한 배우가 영화 속 최고를 위해 한판벌이는 내용으로 소지섭(이강패 역)과 강지환(장수타 역)을 주인공으로 한다. 진짜 깡패가 영화 속 깡패로 들어와 영화를 완성하고, 실제로 싸워서 액션영화를 완성하는 과정이 거칠고 단순하고 때론 비약을 거듭하지만 꽤 매력 있게 묘사되고 있다. <영화는 영화다>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까지 영종도와 용유도 일대에서 모두 다섯 차례 촬영했다. 영종도 공항남로를 비롯해 인천교직원 수련원, 삼목선착장, 선녀바위해변에서 자동차 추격 씬 등을 찍었다. 특히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소지섭과 강지환이 끝장 한판 벌이는 장면은 인천대교가 보이는 넓은 갯벌에서 촬영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인천대교의 실루엣이 멋지게 나와 관객의 시선을 잡는다. 영화 포스터 역시 이 갯벌에서 찍었는데 보기 드문 ‘역작’이란 후문이다.



## 도화기계공고 방학 중 ‘레디, 액션’

이정미 감독의 <미쓰 홍당무>는 이제껏 한국영화에서 단 한번도 소개되지 않았던 독특한 캐릭터와 스토리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영화 주인공 ‘양미숙’ (공효진 분)은 시도 때도 없이 얼굴 빨개지는 안면홍조증에 걸린 고등학교 러시아어 교사다. 29년째 짝사랑만 해오던 그가 좋아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이야기다. 외모 지상주의와 사회적 편견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의 허를 찌르는 재기 발랄한 대사, 비상식적인 우정을 나누는 사제시간처럼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개성이 넘치는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앙상블, 예측 불가능한 해프닝 등이 신선한 웃음과 재미를 안겨 주는 웰메이드 영화다. 극심한 안면홍조라는 콤플렉스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미쓰 홍당무>의 주인공이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일련의 성장 과정은 관객들에게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쓰 홍당무>는 남구 주안동에 있는 도화기계공고와 도화오거리 일대에서 촬영됐다. 영화 촬영은 지난 1월 초부터 두 달 동안 학교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진행됐다. 원래 회의실이었던 장소를 어학실과 강의실 세트장으로 만들어 사용했고 교장실과 교문, 교사동·실습동, 교실, 학교로 들어오는 언덕 비탈길 등이 영화 장면에 등장한다. 오는 10월 중순에 개봉 예정이다. 🍷



## 인천 촬영, 인천영상위원회가 돕는다

2006년 8월 사무국이 구성된 인천영상위원회는 우리지역에서 이뤄지는 국내외 영상물(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CF 등)의 촬영을 유치·지원한다.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온라인 서비스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인천영상위원회의 주요 로케이션 촬영 지원 현황을 보면 ‘유혹의 기술’ (제작사 드림컴스의 중구 요식업조항구 58은행, 남구청 일대, 자유공원 등 ‘지구에서 사는법’ (인디스토리)의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 동양동 주공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등 ‘공중곡예사’ (CJ엔터테인먼트)의 구 58은행 등 ‘연인’ (마술피리)의 인천해양생태공원 등이다.



## 새로운 **UI** 선포 수도권 최고의 전문대학으로 '도약'

### 특성화학과로 인재 만들기 앞장

지난 9월, 개교 37년을 맞은 재능대학이 새로운 UI를 선포하며 수도권 최고 대학으로의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올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2008년 우수인력양성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돼 특성화 대학의 면모를 또 한번 보여준 재능대학의 앞날에 기대가 크다.

2012년 수도권 최고 대학을 목표로 한 재능대학의 도약은 이미 시작됐다.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고, 사회와 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특히 특성화학과 육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호텔외식조리과를 신설했다. 인천지역에서는 유일한 학과인 호텔외식조리과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먹을 음식을 책임지고, 송도경제자유구역, 청라경제자유구역 등에 학교기업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재능대 호텔외식조리과는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올해 세 차례나 전국 규모의 음식조리경연대회에 참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상인 최우수상과 금상 등을 수상했다.

미용예술과도 '제2회 한국미용기능경기대회'에서 노동부장관상과 금상, 은상을, '제15회 서울국제미용건강 올림픽'에서 그랑프리상과 대상, 금상 등을 수상했다. 또 동구청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자 기초교육에 참여해 지역과 함께하는 특성화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쓸모 있는 사람'을 키우는 학교

재능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은 기업에 필요한 '쓸모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올해 입학식에서는 교수와 신입생이 '10-10-10' 취업연약식을 진행했다. 이는 교수 1명이 10개의 기업에 기술, 연구력 제공 등 산학협약을 통한 관리를 하고 10명의 학생을 취업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취업률은 지금보다 10% 증가되어 100%의 취업률을 달성하게 된다. 이 제도도 역시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능대학은 또 최저학력인증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면접과 인성을 평가해 실력있는 학생을 키우고, 졸업학점도 공부를 안 하면 손해를 보도록 까다롭게 평가하는 것이다. 또 봉사활동제도를 활성화해 교양점수로 채택하고, 인성교육도 충분히 실시할 방침이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변화를 감지해 한 발 앞서가는 기술과 기업체 동향을 가르치는 것은 교수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이미 교수, 직원, 학생이 모두 동참해 한 배를 타고 변화의 길을 걷고 있는 재능대학은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으로 최고의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UI(University Indentify)선포식을 겸한 재능대학의 날 행사에 지역 산업체, 교육계, 기관 등 5천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박수와 갈채로 성원한 것도, 어찌 보면 거침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재능대학이 수도권 최고의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겠다는 이유에서 일지 모른다. ♡

차 한잔 | 재능대학교 이기우 학장

### '변화'와 '혁신'으로 최고 대학으로 크겠습니다

재능대학의 교육목표는 무엇인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능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변화와 혁신'을 화두로 삼고, 사회와 기업의 환경변화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쓸모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자 어떠한 교육을 펼치고 있는가

먼저 입학, 재학, 취업이 연계된 인성교육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산업인재를 키우기 위해 실무교육·인성교육 중심의 활성화된 멘토링 프로그램과 실용 위주의 영어 교육, 중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학력인증제를 실시해 실력 있는 학생들을 키울 방침입니다.

재능대학만의 경쟁력, 앞으로 나아갈 길은

재능대학은 해마다 교육부 재정지원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2008년 우수인력양성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지정돼 7억3천1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는 실무교육과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대학의 차별화 전략이 정부의 교육정책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대학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최고의 교육기관을 목표로 합니다. 재능대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최고의 교육환경에서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받고 어떤 기업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하고,  
기업에 감동 주는 대학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막上막下

이달의 공연

## 극단 미르 빛의 틈 사이에서



이 작품은 한 사내가 상실된 자아를 찾아 일그러진 자신의 세계를 복구해 가는 이야기다. 사내는 밖의 세상과는 담을 쌓은 채 자신의 세상 속에서만 살아간다. 그를 찾아온 여인은 매우 당돌하며 역시 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물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가 작품 중 스스로를 거울 같은 존재라고 밝히는 것처럼 주인공의 투영임을 알 수 있다.

**일시** \_ 11월 4일까지 매주 월, 화 오후 8시  
**장소** \_ 아트홀 소풍 (간석5거리 위치)  
**티켓** \_ 일반 20,000원, 학생 10,000원  
**문의** \_ ☎ 442-8107

## 퓨전클래식 오페라미까



오페라미카는 Opera와 Amico(친구)라는 이탈리아어의 합성어로서 노래를 통해 서로 친구가 되고자 하는 뜻을 가진 고유명사이다. 기존 클래식 공연에서 볼 수 있는 단순한 피아노 반주 일색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심하게 편곡해 좀더 폭넓은 음연을 구사함으로써 관객들은 폭발적인 사운드를 즐길 수 있다.

**일시** \_ 10월 18일(토) 오후 3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티켓** \_ 전석 6,000원  
**문의** \_ ☎ 777-9140~8 www.iecs.go.kr

## Tango Jazz La Vent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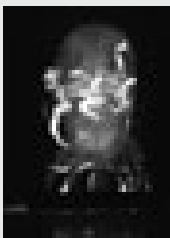
장인 즉흥연주를 통해 연주자 개개인의 개성이 살아있는 색다른 탱고를 연주한다.

**일시** \_ 10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  
**티켓** \_ 전석 1,500원  
**문의** \_ ☎ 505-5995

## 인다비 2008

인다비는 ‘인천댄스비엔날레’의 합성어로서 푸른 바다와 춤의 열정, 쾌적한 그린(Green) 환경 속에서의 축제가 살아 있는 도시인천의 품격을 업그레이드하는 무대공간을 지향하는 무용축제이다. 포즈댄스시어터, 박태희 발레비전, 달란 뉴콤(네덜란드) 등이 참가한다.

**일시** \_ 10월 31일(금) 오후 7시 30분, 11월 1일(토) 오후 6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R석 30,000원, S 20,000만원, A석 10,000원



## 더리미 미술관

# '상여가는 길'

강화의 시원한 바닷바람과 청초한 연꽃밭 사이에 위치한 더리미 미술관에서 10월 18일(토) 오후 6시 '상여가는 길'을 주제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연한다. 35개의 하수아비들이 만장을 들고 상여를 짊어진 모습과 상여행렬을 지켜보는 하수아비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죽음을 지켜보는 인간에 대한 해학적이고 승화적인 모습을 연출한다.

10월3일~10월9일 : 제3회 환경미술회화제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10월3일~10월9일 : 제2회 에그아트회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10월3일~10월9일 : 제22회 인천구상작가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10월2일~10월9일 : 제1회 인천관광사진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10월3일~10월4일 : 중국 텐진시 여류화가 초청 특별전 / 한중문화관 전시실  
10월4일~10월25일 : 도시재창조 연구 프로젝트별전 / 부평역사박물관  
10월7일~10월11일 : 제 4회 인천원로 초대작가 초청전시회 / 한중문화관 전시실  
10월8일~10월15일 : 초등교사 미술전시회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10월10일~10월23일 : 송암 탄생 120주년 기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앙전시실  
10월10일~10월16일 : 한일 여성 국제사진 교류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10월10일~10월16일 : 제13회 금도회 개인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10월12일~10월19일 : 최병록 선생 동양화 특별전 / 한중문화관 전시실  
10월17일~10월23일 : 휴과 사람 그림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10월17일~10월23일 : 은물로 풀어가는 작품전시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미추홀전시실  
10월23일~10월30일 : 수채화 특별전 / 한중문화관 전시실  
10월24일~10월27일 : 인천수석인 작품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10월24일~10월30일 : 남향집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10월24일~10월27일 : 인천수채화아카데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10월24일~10월27일 : 한중 수채화협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10월25일~10월30일 : 교원사진연구회 사진전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10월28일~10월31일 : 제2회 소천 안정자 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전시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월		<b>1 인천국제클라운 마임축제(~5일)</b> 돌체·도호부청사 야외무대 오후 4시, 7시 / 1만5천원, 8천원 ☎ 772-7361	<b>2 전통무용 &lt;산고수장&gt;</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무료 이은주무용단	<b>3 금요일예술무대 타악과 비보이의 만남 - 공강</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30분 / 무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420-2022	<b>4 임미희오페라단 제5회 정기연주회 세계가곡페스티벌 (추억)</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5만원 / 3만원 / 2만원 ☎ 265-8683 <b>KBS교향악단 피터와 늑대</b>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4시 30분 / 무료 / ☎ 777-9140 <b>토요상설무대 - 인천시립무용단(한국무용)</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시립무용단 ☎ 420-2788	<b>5 2008 four Seasons of young &amp; Dream 2차 안무가</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5시 / 1만원 / 인천안무가협회  <b>어린이 인형극</b> 한중문화관 오후 2시 / 무료
	<b>7 인천시립교향악단 실내악 연주회</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5천원 ☎ 420-2781	<b>8 제2회 명사와 시민이 함께하는 시낭송의 밤</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30분 / 초대 한국문화원연합회 인천시지회 ☎ 765-0267	<b>9</b>	<b>10 탱고재즈 '라 벤따나'</b>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30분 / 1천5백원 ☎ 505-5995	<b>11 시민문화프로그램 달아 달아</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7시 / 1만5천원 ☎ 420-2027~8 <b>토요상설무대 - 인천시립무용단(한국무용)</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7시 / 무료 / 인천시립무용단 ☎ 420-2788 <b>음악동화 이야기 (피 많은 토끼)</b> 부평기적의 도서관 공연장 어울림 오후 3시 / 무료 / ☎ 505-0612	<b>12 시민문화프로그램 달아 달아</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 1만5천원 ☎ 420-2027~8 <b>풍물패울림마당 제19회 정기공연</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오후 3시 / 풍물패울림마당  <b>주니어 현악합주단 가을연주회</b>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6시 / 무료 / ☎ 888-0817
	<b>14 제41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사한국음악협회	<b>15</b>	<b>16 시립합창단 초청기념연주회</b> 인천하늘꿈교회 ☎ 420-2784	<b>17</b>	<b>18 국악체험놀이극 &lt;얼씨구나 용궁가자&gt;</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 오후 2시 / 4시 1만5천원 / 두부기획 ☎ 02)2654-6854 <b>토요상설무대 - 뉴락 10월의 어느 멋진 날</b> 오후 7시 / 무료 / 인천시립무용단 ☎ 420-2788 <b>나이지리아 기예단 초청공연</b>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 무료	<b>19 국악체험놀이극 &lt;얼씨구나 용궁가자&gt;</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1시 / 오후 2시 / 4시 1만5천원 / ☎02)2654-6854
	<b>21 한국무용발표회</b>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7시 30분 / 무료	<b>22</b>	<b>23</b>	<b>24</b>	<b>25 어린이 뮤지컬 &lt;브라보 내 친구 토토&gt;</b> 한중문화관 / 오후 2시 / 무료	<b>26 VIBE무용단&lt;물의위기&gt;</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6시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b>28 제6회 남동구문화 예술회무용 정기공연</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 ☎ 453-2132	<b>29 제3회 남구청소년 합창단 정기연주회</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 초대 / ☎ 880-4287	<b>30 책을 만난다. 친구생각 + 내 생각</b> 부평기적의 도서관 공연장 어울림 오후 7시 / 무료	<b>31 인다비 2008</b>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7시 30분 / 3만원 / 2만원 / 1만원 김현숙현대무용단 <b>국립합창단 가족음악회</b>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오후 7시 / 전석 6천원 ☎ 777-9140		

영화공간

주안

## 달려라 자전거



첫사랑의 미열을 느끼는 대학교 새내기 하정의 러브 스토리 혹은 그녀의 성장기. 이들에게 첫사랑은 과거에서 빠져나와 어른이 되는 관문이다. 하정역의 한효주는 다채로운 표정과 때때로 엇보이는 강인함으로 스무살 하정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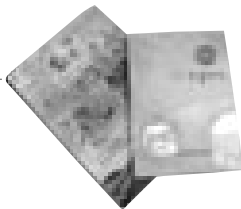
꿈과 열정을 담아 온몸으로 노래하는 두 소년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서로 출발은 다르지만, 하나의 꿈을 향해 같은 무게의 고민을 나누는 두 소년의 감동적인 소리판이 펼쳐진다. 1년 동안, 그들곁에서 작지만 예민하고 소중한 변화의 순간들을 관찰하고 기록한 작품이다.

## 소리 아이

※ 영화공간 주안은 인천시 남구가 운영하는 예술영화관으로, 일반영화관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개관시간은 오후 1시부터 10시이며 월요일은 휴관이다. ☎ 427-6777

※ 공연 및 전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세요.

# BOOK



## 섬과 사람의 이야기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중구 영종도와 용유도의 과거와 현재, 인물 등을 두루 엮은 책이 나왔다. 영종·용유지 발간위원회가 최근 펴낸 '영종·용유지-섬과 사람의 이야기'는 이곳 출신 향토사학자 김근배씨가 1992년 펴낸 '영종·용유 향토사'를 밑바탕으로 사학자·국문학자·민속학자·향토사가들의 연구 성과를 더해 집대성한 책이다.

영종도, 용유도, 유적과 명승지, 섬과 땅 이름 이야기, 방언, 금기언(禁忌言), 속담과 수수께끼, 민요, 민속 신앙, 민속 예능, 영종·용유의 옛 이야기, 영종·용유의 인물, 연표에서 공공기관과 단체,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그 의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15편으로 구성돼 이들 섬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내용을 담은 이 책은 일반인들에게는 영종·용유도를 소개하고 알리는 안내서, 전문가들에게는 지역 연구의 참고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책 편찬에 참여한 조우성 인천시 시사편찬위원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영종·용유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간과 자연을 기록해 후대에 남기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생각에 이 책을 엮었다'고 말했다.

(503쪽, 도서출판 푸른섬·3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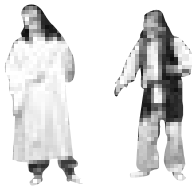
## 추억 속의 동구 이야기 **아! 옛날이야**

동구는 인천 도시발전 역사의 한 축을 꿰차고 있는 지역이다. 개항기부터 피난 시절, 산업시기를 거치면서 인천 서민들의 집결지 역할을 하며 인천의 서민문화, 근현대사가 녹아있는 곳이다. 크고 작은 공장으로 둘러싸여있고 달동네 촌락이 형성되었으며 이제는 인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개발이 늦다보니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해 온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배다리 관통 산업도로 및 구도심 재개발 등으로 동구의 옛모

습과 역사는 파괴될 운명에 놓여있다. <아! 옛날이야>는 어린시절부터 노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동구에서 살면서 동구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꿰뚫고 있는 김학균 시인이 동구의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낸 책이다. 수도국산의 옛모습과 무네미 골, 동일방직, 헌책방 거리, 수문통, 인천교, 화수부두, 창영동 꿀꿀이 죽 등 개항의 역사와 산업 과정의 역사와 문화, 생활상 등이 책 갈피갈피에 묻어 있으며, 시인이 엮은 책답게 장소에 걸맞은 시도 간혹 곁들여 있다. 182쪽, 도서출판 진원

## | 인천&아츠 시민문화 프로그램 |

### 연극 **달아달아**



극단 한무대의 연극 <달아 달아(이유진 작, 최종욱 연출)>는 2007년 거제에서 열렸던 25회 전국연극제에서 최고의 호평과 함께 작품상과 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고구려 25대 평원왕 때의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역사적 이야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대중들이 쉽고 친근하게 연극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의 형식을 탈피하여 새롭게 구성했다.

'평강공주와 온달장군'이라는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되, 그들의 사랑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즉, 설화적 이야기를 현대 감각에 맞춰 재구성하되, 배우들의 코믹한 연기와 재치를 가미하여 더욱 폭 넓은 계층의 관객을 수용하고자 했다.

전국연극제 심사위원진은 고전적인 정통 연극을 탈피, 역동성 넘치는 무대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특히 다른 경선작을 능가하는 큰 스케일을 강점으로 꼽았다. 20명에 이르는 많은 출연진과 기동 줄거리와는 별도로 시각적인 볼거리를 제공, 무술배우들이 펼치는 국예연기 또한 하나의 볼거리로 관객들에게 독특한 재미를 안겨준다.



- 일시 \_ 10월 11일(토) 오후 3시, 7시 / 12일(일) 오후 3시
- 장소 \_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티켓 \_ 전석 1만5천원
- 문의 \_ 인천&아츠 사무국 ☎ 420-2027~8, www.incheonarts.com



## 시립합창단 초청기념 연주회



환상의 화음과 풍부한 감성, 다채로운 무대연출로 매 연주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인천시립합창단이 2009년 3월 미국 ACDA(미국합창지휘자연합회) National Concert 초청을 기념하기 위한 두 번째 음악회를 인천하늘꿈교회에서 연다.

지난 3월 첫 번째 초청기념연주회에서 '한국의 훈'이란 타이틀로 7인의 작곡가들과 함께 새로운 합창음악을 선보여 탄성을 자아내게 했던 인천시립합창단의 2번째 초청기념연주회다. 9월 예술의 전당 공연에 이어 인천 공연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다. 한국 합창계의 대부이자 인천시립합창단을 이끄는 윤학원 예술감독의 지휘와 인천시립합창단의 뛰어난 예술적 기량이 조화된 이번 공연은 많은 합창애호가들의 마음을 울리는 공연으로 기억될 것이다.

- 일시 \_ 10월 16일(목) 오후 8시
- 장소 \_ 인천하늘꿈교회
- 문의 \_ 인천시립합창단 ☎ 420-2784



# 야구사랑은 인천의 진한 지역정서

우리나라에 야구가 들어온 것은 개항장이었던 인천을 통해서였다. 철도, 우편, 전화, 등대, 기상관측 제도가 국내 최초로 도입되었을 무렵 축구와 함께 야구도 들어왔다. 스포츠 ‘베이스 볼’도 개화 문물의 하나였던 것이다.

글 · 조우성 시인 · 인천시 시사편찬위원

## 영어야학교 생도들 처음 시합해

과거의 통설은 1905년 황성기독교청년회(현 서울 YMCA)의 총무 필립 질레트가 야구를 가르친 것이 효시라고 했었다. 그러나 그 같은 주장은 인천 지역사를 알지 못한 데 따른 오류이다. 아직도 역사를 왕실이 있던 ‘서울’ 위주로 기술한 잘못된 예의 하나라 하겠다. 양탕국(洋湯國 · 커피)의 도입을 서울의 손탁호텔로, 철도 시발지를 노량진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역사적 실체에 다가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최초의 야구팀인 한용단

일본 개성교 학생들이 일본 야구 도입기에 그랬듯, 인천고(仁川高)의 전신인 인천영어야학교 생도들 역시 역사적 중계자로서의 역할을 해 냈던 것이다. ‘인천고100년사’는 영어야학교 1학년생의 1899년 2월 3일자 일기를 소개하고 있다.

‘3시 근무가 끝난 다음 4시경부터 중상(中上) 군을 불러내어 일연중(一蓮宗 · 옛 신흥초등학교 옆의 절) 앞 광장에서〈중략〉함께 ‘베이스 볼’이라는 서양식 공치기를 하고 5시경에 돌아와 목욕탕에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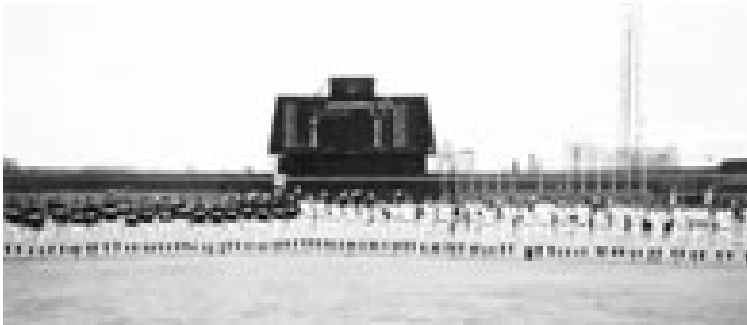
비록 14~5세 된 일본인 학생의 일기이나 이것이 ‘국내 최초의 야구(野球) 기록’인 것이다. ‘역사는 기록을 남긴 자의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일기장의 기록은 인천 제물포가 야구의 도입지이며, 이미 인천에서는 야구가 일반화된 운동 경기였음을 말해 주고 있는 단서인 것이다.

그로부터 출발한 야구의 열기가 결집돼 첫 팀을 창단한 것은 1915년 경이었다. 그 해 10월 31일 인천상업 팀은 이미 철도구락부 주최 경룡추계야구대회에 참가했고, 그 후 인우구락부, 실업구락부, 미신구락부 등이 등장해 ‘웃터골’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인천 야구의 싹을 키워갔다.

1919년에는 경인가차통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이 한용단(漢勇團)을 조직했는데, 이것이 인천 한인 최초의 야구팀이었다.

한용단은 인천 부민의 희망이요, 우상이었고, 야구사랑은 그 무렵부터 인천의 지역 정서로 자리 잡아 나가기 시작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22년 5월 인천체육회 야구부가 주최한 전인천우승기쟁탈전에는 한용단, 기봉단, 상우단 등 조선인 팀을 비롯해 10개 팀이 참가하는 등 일대 붐을 이루었다.

그러나 193.4년 이들이 활동하던 웃터골 공설운동장 부지에 인천부립중학교(仁中)가 세워지게 되자 야구장은 도산정(桃山町 · 지금의 송의동)으로 이전해 갔다.



철거예정인 송의야구장에서 마지막 시합 후 이류를 고하는 선수들



1960년대 야구장 이모저모

## 인천 야구 전성기 구가한 송의구장

이 운동장에서 실력을 연마해 인천의 명성을 드높인 것은 인천상업 야구팀이었다. 비록 일본인 위주의 팀이었지만, 이기영, 이호직, 김영택 같은 선수들이 크게 활약하였고, 김선웅, 장영식 선수는 조선 대표로 일본 갑자원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일제는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자 야구를 영미귀축(英美鬼畜)의 운동이라며 중지시켰고, 심지어는 식량을 증산한다며 소화고녀(昭和高女 · 지금의 박문여고) 학생들을 동원시켜 야구장에 콩과 고구마를 심는 등 광기를 부리다가 물러났다.

야구 경기를 재개한 것은 광복 후인 1945년 9월 중순이었다. 우선 콩밭을 야구장으로 환원시키는 한편 체육인 정용복 선생의 주선으로 미 공병대와 보수작업을 했고, 운동장 최씨가 마지막으로 번듯한 백색 라인을 그어 야구장을 우리 품으로 돌아오게 했다.

인천 주둔 미군과 급조한 전 인천군과의 대결이 첫 경기였는데 그를 계기로 미 항만사령부와 에스컴사령부는 볼, 배트, 클럽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 인천 야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인천고와 동산고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야구대회인 청룡기와 황금사자기 대회 등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년간 전국을 제패해 인천 시민들을 열광케 했다. 인천 시민들은 야구사랑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런 토양 아래서 2004년 5월 인천고가 야구부 창단 100년 만에

중앙일보 주최 제38회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해 대통령기를 차지한 것은 인천 야구의 부활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 세계를 제패해 인천 이름 빛낸 야구

인천고는 이어 2005년 4월에 열린 한국야구100주년 기념 우수고교초청 야구대회에서도 우승함으로써 다시한번 인천이 야구의 도입지이자 그 전통을 이어온 본고장임을 과시하였고, 동산고와 제물포고 역시 각종 전국대회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 왔다.

프로 야구도 약진을 거듭했다. 현대 유니콘스의 탈인천(脫仁川)으로 크게 실망했던 야구팬들이 후발 ‘SK 와이번스’의 노력을 높이 사 우리 팀으로 받아들였다. SK는 삼미 이후 그 어느 팀보다 눈부신 활약으로써 보답해 인천야구의 맥을 지키고 있다. 올 정규 리그에서도 우승해 2연패를 기록했다.

특히 금년 북경올림픽대회 야구 부문의 우승은 실질적으로 인천 야구의 승리여서 시민들의 가슴을 더욱 벅차게 하였다. 세계 야구계를 놀라게 한 투수 류현진 선수는 창영초등학교, 동산중, 동산고에서 자란 우리의 아들이요, 김광현 선수를 비롯한 주전의 상당수가 SK 현역 선수라는 것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이처럼 인천 사람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해 온 인천 야구의 보금자리인 송의야구장이 도시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5일 남구청장기 쟁탈 초 · 중등부야구대회를 끝으로 땀과 눈물, 좌절과 환희로 점철된 전광판은 더 이상 불을 켜지 않게 된 것이다. 🍷



## 일과기록을 왜 이리 이상히 보는가?

내게는 남들은 조금 이상하게 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취미가 있다. 평소 여행이나 외출을 자주하는 편인데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래서 남들은 버스나 지하철 노선을 정확히 몰라 버스나 전철 내에서 전철노선도를 찾아보는 일이 허다하지만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이미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기 때문이다. 처음 가는 곳의 교통편을 이해하기 위해 머릿속이나 다이어리, 심지어 메모지에도 상황에 따라 기록해 두는 것이 습관이 됐다. 그래서 기록을 하지 않으면 허전한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이렇게 일과를 기록하다보니 이용한 교통편(버스 노선번호, 운행회사, 시간 등)이나 상점에 들어가서 구입한 물건의 개수와 가격, 기타 사람을 만날 때 대화내용이나 전화 통화내용, 식사나 간식 때의 음식,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TV를 비롯한 언론 매체에서 듣고 보고 읽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두는 것도 습관이 됐다. 언젠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다이어리 활용법>이라는 책을 보면서 메모의 장점을 살펴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신문으로 공부하자>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무려 37년간 5분 단위로 자기 일과에 대해 기록했다고 하니 그 사람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하지 않은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억력도 희미한 잉크보다 못하다’라는 중국의 속담에서도 메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박종형\_남동구 구월4동



### 이것도 취미라고

살다보니 괴팍한 집착이 나를 괴롭힌다. 30년은 족히 된 것 같다. 사람들은 내가 수석에 취미가 있는가보다고 말을 한다. 나는 탐석을 한번도 가본 적이 없고, 수석가게를 기웃거리면서 좌대를 만들어본 적도 없다. 형태가 기이하거나 무늬가 특이하면 무조건 챙기는 버릇이 있다. 나는 평생 주택만을 고집하면서 살고 있다. 손바닥만한 마당에 괴석을 늘어놓고, 야생화를 심고, 작은 연못을 만들어 수초를 심고, 돌담을 쌓고… 그냥 이 재미로 산다. 동네 사람들은 나의 취미에 박수를 보내고 즐거워한다. 행복을 심어주는 우리집 정원이 자랑스럽다고 말한다. 이 것이 내가 주택만을 고집하고 사는 이유다. 정원이 예쁘게 가꾸어져 있는 집이 있으면 기웃거리는 버릇이 있다. 한번은 이웃 동네를 지나다 버릇이 도졌다. 대문이 열려 있었다. 대문 안에 문양이 독특한 조금 큰 돌이 눈에 들어왔다. ‘이거 호피석아냐?’ 하고 중얼거리면서 두 손으로 집어 들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그 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여보

세요. 그러면 됩니까?” 말끝이 너무 매서웠다.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너무 돌에 심취하다보니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것이다. 영겁결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돌을 내려놓았다. 얼굴은 홍당무가 되어서. 그러나 주인은 흔쾌히 돌을 주었다. 그리고 던진 말이 뇌리를 파고들었다. “다음부터는 꼭 허락받고 가져가세요.” 조금 오다가 너무 속상해서 돌을 길가에 버렸다. 그리고 한참을 오다가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돌을 주었다. ‘내 별난 취미는 영원히 내 곁을 떠나지 못할 거야.’ 라고 중얼거리면서…

박인정\_연수구 연수1동

## 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내 취미는 오직 예쁜 꽃을 정성스럽게 심고 가꾸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꽃이라고 하면 가시가 덕지덕지 솟은 아카시아든 장미든 피어날 때부터 꼬부라진 할미꽃, 호박꽃이든 다 좋아하는 것을 보면 꽃에 대한 광적인 습관이고 천성인지도 모른다. 울적하고 고독을 느낄 때도 그 꽃들을 바라보고 향기에 젖노라면 마음속에 억눌렸던 스트레스나 외로움이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다. 동네 이웃 분들이나 절친한 또래의 친구들은 가끔씩 나보고 훌륭한 아마추어 화훼사며 꽃박사라고 농을 섞으면서 꽃 이름을 물어오기도 하고 꽃씨랑 꽃나무 결뿌리를 이식해가기도 한다. 꽃에 대한 내취미와 열정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줄 때마다 꽃처럼 온화한 미소로서 답례한다. 나의 영원한 취미 꽃 사랑은 내 생애 다 할 때까지 이어지리라! 아름답고 향기롭게…

최옥희\_강화군 길상면

## 떨리던 그 순간



사진 찍는 것이 취미다 보니 꽃이며 곤충이며 자주 찍게 된다. 그러다 보니 무서운(?) 사마귀도 찍게 되었다. 그런데 그만 사마귀가 내 손등에 올라 타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무섭고 떨렸던지. 그래도 참고 사마귀를 모델로 삼은 취미활동을 했다. 사진 찍는 게 정말 좋기 때문이다.

김윤순\_동구 송현동

## 인터넷 체험단

내 취미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갑자기 집안 형편이 기울어 힘들게 몇 년을 버티고 있을 무렵이었다.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에 ○○에서 부모님께 어버이날 기념으로 편지를 작성해서 당첨되면 ○뿌리 한 박스를 보내준다는 이벤트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결혼해서 엄마에게 변변한 약 한번 헤드린 적이 없던 나는 엄마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아 글을 썼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당첨이 되어 어버이날 정확하게 엄마 앞으로 ○뿌리 한 박스와 편지가 도착했다는 엄마의 연락이 왔다. 그 후로 나는 인터넷 이벤트 행사를 찾아다니는 버릇이 생겼다. 그로부터 1년 후 또다시 기회가 왔다. 어린이 전자사전 체험단 모집이었다. 영어 공부와 한글 사전, 구구단까지 이것저것 다 들어있어 초등학교 딸아이에게 아주 유용한 제품이라 글을 써서 당첨이 되었다. 한 달간 체험을 하면서 일기형식으로 매일 매일 체험글을 올렸는데 베스트 후기에 당첨되어 제품을 받았다. 아싸~~내 적성에 딱 인걸? 하면서 그동안 애들한테 못해준 것을 이렇게 해서 해주자 생각하고 유아사이트며 주부사이트를 매일매일 들어가서 확인하고 참여했다. 덕분에 문화공연, 뮤지컬 관람, 체험, 책, 인터넷 학습지 무료 공부, 한우 체험, 화장품체험 등 많은 체험단 활동을 지금껏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체험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면 모두에게 기쁜 일이 생기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다.

염주영\_서구 검암동

## 인사 기록 카드 취미란의 ‘등산’

지금은 현업에서 떠났지만 지난 40여 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의 기록카드 취미란엔 언제나 ‘등산’을 적었다. 등산의 시작은 40여 년 전 4월초 식목일에 직장 같은 부서탐과 천마산을 오른 게 처음이다. 당시엔 교통도 불편하고 개인용 등산 장비라야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한 속칭 군용 워커나 방수 되는 배낭과 자켓이 전부였다. 그 날 우리 일행은 평내역에서 내려 산행을 시작했는데 깊은 골짜기엔 잔설이 있었고 이정표가 없어 무척 힘든 산행이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난 건설회사에 몸담으며 10여 년간의 국내외 관리 근무를 빼고는 매년 평균 80회 이상은 산행을 했다. 내가 2년 전 46년간의 서울 생활을 정리한 후 이곳 계양산 산자락으로 오기 전까지 주로 생활한 하곡동에서만 1천회 이상 관악산을 올랐다. 나의 등산기록 중 지난해 통상 세 번째의 지리산 종주(정상정복 8회째)는 지금 생각해도 뿌듯함으로 남아있다. 곧 회갑



을 맞을 후배 내외와 첫날 13시간 산행을 한후 세석대피소에서 일박 후 대원사로 하산했다. 등산, 힘들지만 정상정복 후 느끼는 성취감에 난 오늘도 다음 산행지를 찾는다.

김삼섭\_계양구 계산동

## 아들의 취미

내가 다시 태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면 아들처럼 살고 싶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려는 욕망에서 아들의 취미는 여행이란다. 결혼 하기 전에는 혼자 하던 여행을 취미가 같은 배우자를 만나 둘이 손잡고 방학이 되면 해외 연수 여행을 다니더니 이제 어린 남매와 함께 배낭여행, 그것도 멀리 브라질까지 다녀왔다. 영어 교사인 아들이 학생들에게 영어를 잘 가르칠 생각으로 시작한 여행이 이제 주말에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의 여행객을 만나 우리나라의 좋은 모습을 알리고 안내하며 홈스테이를 하는것 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부가 함께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어학능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개인연수의 기회이며 앞으로도 여행을 계속하려고 취미생활을 확고하게 하기 위함인 듯하다. 아들네 집에 가보면 세계지도가 벽에 붙어있는데 밤하늘에 별처럼 표시가 있어서 알아보니 놀랍게도 여행한 곳이라 했다. 내가 교직생활을 할때는 해외여행은 국가에서 특별히 보내주는 연수여행 밖에는 기대할 수 없었는데 요즘은 1~2년 동안 절약하면 방학 때 연수여행을 갈 수 있으니 참 좋은 세상이다. 꿈에 그리던 취미로서의 여행을 아들이 실천하니 나의 취미는 대를 이어 성공한 셈이다. 우리나라 모든 자녀들이 그 부모의 좋은 취미를 닮아 더욱 넓고 크고 높게 발전해 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김종진\_남구 용현4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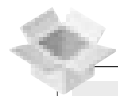
## 다음달 테마는 ‘텔레비전’입니다.

‘텔레비전’에 얽힌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사연을 글로 보내주세요 (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은 주제와 관계없이 계절과 어울리는 재미있고 사연이 담긴 작품을 보내주세요. 게재된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책에 글이나 사진이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은 3장)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주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인터넷 : goodmorning.incheon.go.kr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10월 16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 440-8302)





## info box

### 환경지도자 전문학교교육과정 수강생 모집합니다

전주대학교평생교육원 인천분원인 인천  
환경사랑평생교육원은 전주대학교와 환  
경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 환경지도자 전문화  
교육기관입니다. 교육원에서는 제4기 환경지도자전문화과정을 개  
설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대상 : 환경사랑 실천운동에 관심 있는 일반인
- 모집정원 : 기별 150명
- 모집기간 : 10월 1일(수)~11월 3일(월)
- 교육기간 : 11월 4일(화)~12월 13일(토) 5주 50시간
- 교육시간 :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9시 이론학습,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현장학습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주민등록등본 2통, 사진 6매(반명함판)
- 교육내용 : 보건환경, 수질·대기환경, 폐자원관리, 소음진동 등  
이론학습, 현장체험학습 및 교육평가
- 교육장소 : 전주대학교평생교육원 환경지도자대학(인천시 남구  
주안 6동 922-1 향군회관 4층)
- 수강료 : 40만원(교재비, 체험학습(현장이동 교통비), 졸업사진  
대금 포함)
- 특전
  - 전주대학교 총장 수료증 수여
  - 환경지도자 자격증 발급
  -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
  - 환경부 기술개발센터 환경정보 제공
  - 체험 및 우수활동자 선발 표창
  - 학우회, NGO위원 활동
- 문의 : 전주대학교평생교육원 인천분원  
인천환경사랑평생교육원 ☎ 423-1183~4 FAX 423-1185

### 부평역사박물관 제4기 박물관 대학 수강생 모집

부평역사박물관은 제4기 박물관  
대학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합  
니다.

- 주제 : 흙으로 빛은 우리 문화  
(부제 : 한국 도자사 고찰)
- 일시 : 10월 11일(토)~11월 29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 인원 : 70명(정수강생 50명, 청강생 20명)
- 장소 : 부평역사박물관 지하 1층 다목적실



- 수강료 : 없음
- 신청 : 9월 30일(화) 오전 10시부터(인터넷 선착순 마감)
- 교육구성

강의일자	강의명	강사	소속
10월 11일	한국도자사 개괄	윤용이	명지대학교 교수
10월 18일	고려청자 I	장남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0월 25일	고려청자 II	장남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1월 1일	답사		경기도자박물관 등
11월 8일	조선 분청사기	전승창	홍익대학교 교수
11월 15일	조선백자 I	이종민	충북대학교 교수
11월 22일	조선백자 II	이종민	충북대학교 교수
11월 29일	근·현대 도자의 발전	장기훈	경기도자박물관 학예실장

- 문의 : 부평역사박물관 홈페이지(www.bphm.or.kr),  
학예연구실 ☎ 515-6471

### 우울증과 자살의 이해와 예방

마음의 병은 그냥 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는 '우울증과 자살의 이해와 예방 교육'에  
참여하여 생활의 소중함을 가꾸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기간 : 9월 30일(화)~10월 21일(화) 매주 화요일
- 장소 :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세미나실
- 대상 : 정신건강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30명
- 일정 및 내용

일시	주요내용	강 사
9월 30일(화) 오후 2시~5시	• 우울증 원인, 치료, 예방 • 우울증·자살 자가진단 및 평가	전은미 (부평구정신건강증진센터장 글로벌병원정신과장)
10월 7일(화) 오후 2시~5시	심리극을 통한 우울, 자살의 고찰 및 참여	"
10월 14일(화) 오후 2시~5시	• 삶의 희망 & 죽음의 선택 • 웃음을 통해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정재훈 (남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장 새희망병원 원장)
10월 21일(화) 오후 2시~5시	• 우울증과 자살의 극복 • 새로운 눈으로 본 마음정원	"

- 접수기간 : 9월 8일(월)부터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
- 수강료 : 무료
- 문의 : 여성복지관 상담실 ☎ 440-6563, 434-6436~7



###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하세요

#### 1. 결혼이민가정 부모교육

- 일시 : 10월 19일  
(일) 오후 2시 30  
분~4시 30분
- 대상 : 서구 거주  
결혼이민자 10가정  
(선착순)
- 장소 :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3층
- 내용 : 부부간의 올바른  
의사소통교육
- 참가비 : 무료

- 담당자 : 다양한가족지원팀장 오민숙 ☎ 569-1546

#### 2. 행복한 재혼

- 일시 : 10월 6일(월)~27일(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총 4회)
- 대상 및 인원 : 재혼예정 및 재혼가정 부모 15명
- 내용 : 예비 재혼 부모교육 및 의사소통으로 이혼 및 재혼에  
관한 재인식, 새부모·자녀 이해교육
- 담당자 : 한부모가족지원팀 최지은 ☎ 569-1545

#### 3. 무료 상담

- 이용방법 :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방문상담, 홈페이지 상담  
(http://icseogu.familynet.or.kr)
- 내용 : 모래놀이치료, 개인 및 가족상담
- 문의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 569-1547(면  
접상담은 전화 예약 후 내방)

#### 4. 아이돌보미 이용가정 모집

긴급하고 일시적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시  
간제로 육아와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 대상
  - 만3개월~12세 아동(초등학생 이하)이 있는 가정
  - 장애아동(경증) 범위 내에 있는 가정
  - 이용기간 : 2008년 10월~12월
  - 이용료 : 가형 1명 2시간 2천원 추가시간 5백원  
나형 1명 2시간 8천원 추가시간 3천원
  - ※ 가, 나형의 대상자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보  
육료 감면 결과 통보서로 확인
- 신청 : 아이돌보미팀장 김신애 ☎ 569-1548



### 10월에는 국기를 게양합니다

10월의 국군의 날(10월 1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은 전  
국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입니  
다. 우리 모두 태극기를 게양하여 이  
날을 경축합니다.

#### ■ 태극기는 이렇게 답니다

-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국기를 국  
군의 날부터 한글날까지 계속  
게양할 수 있습니다.
- 단, 심한 비·바람 등으로 손상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를 내려야 합니다.

#### ■ 태극기는 어디에 달까요?

- 주택의 경우는(집밖에서 볼 때)
  - 단독주택 :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공동주택 :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의 구조상 부득이 한 경우,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경우 전면에서 보아 왼쪽이나, 왼쪽 유리창문에 게양

#### ■ 태극기 구입은 어디서?

- 가까운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우편주문판매'를 이용하거  
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구입
- 시·군·구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문의

- 문의 : 시 총무과 ☎ 440-2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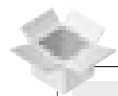
### 10월 무료검진 안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및 의료 소외 계층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 자궁경부암 검사

- 검진기간 : 10월 6일(월)~10월 10일(금)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검진장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2층(산부  
인과)
- 검진대상 : 인천시민에 한함  
※ 주민등록증은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항목 : 세포 검사





## info box

- 검진인원 : 100명
  - 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산부인과 ☎ 580-6123
- ### 2. 소아빈혈 검사
- 검진기간 : 10월 20일(월)~10월 24일(금)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 검진장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1층 (소아청소년과)
  - 검진대상 : 인천에 거주하는 소아 및 청소년
    - ※ 보호자의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항목 : CBC(혈액검사)
  - 검진인원 : 15명
  - 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소아청소년과 ☎ 580-6073
- ### 3. 10월 보건 강좌
- 주제 : 고혈압 치료와 합병증 예방
  - 일시 : 10월 30일(목) 오후 3시
  - 장소 : 인천광역시의료원 대회의실
  - 문의 : 인천광역시의료원 총무팀 ☎ 580-6652

## 10월 인천그랜드세일



## 우리 책, 우리가 고쳐요

부평기적의도서관에서는

한 해 동안 도서관에서

발생된 다양한 파손 도서

를 전시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책을 고쳐보는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했습니

다. 파손 도서를 주제로 한 특별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 이용예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공공의 책을 소중

히 여기는 마음을 키우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 행사명 : 우리 책, 우리가 고쳐요

■ 전시기간 : 10월 7일(화)~10월 31일(금)

■ 체험일시 : 10월 25일(토)~10월 26일(일) 오후 3시~

■ 장소 : 부평기적의도서관 내

■ 대상 : 도서관 어린이 이용자

■ 행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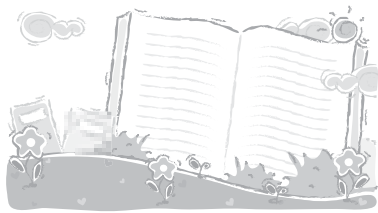
– 파손 도서 전시 : 도서관에서 발생한 다양한 파손도서 전시

– 파손 도서 보수 체험 프로그램 : 파손 도서를 직접 고치고

자신의 이름 새기기

※ 체험 프로그램은 선착순 무료 참가임

■ 문의 : 부평기적의도서관(www.bpml.or.kr) ☎ 505-0612~3



## 인천수목원 개원행사 열립니다

인천대공원에 인천수목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목원 개

관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립

니다. 시민여러분이 함께 하

셔서 수목원 개원을 축하해

주세요.

■ 일시 : 10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인천수목원 정문 앞 기념식장(인천대공원내)

■ 수목원 주요 시설

– 수목전시원 : 3개 지구, 40개 전시원(전시식물 : 금송 등

1,006종 214,031본)

– 건축시설물 : 2개 센터(탐방객안내소, 수목정보센터)

– 기타 연못 및 계류, 데크, 기계실 등

■ 행사 내용

– 식전행사 : 헌악 4중주 연주

– 1부 행사 : 기념식



– 2부 행사 : 문주제작, 테이프커팅, 수목원관람, 기념식수

– 3부 행사 : 분재 전시회

■ 문의 : 시 동부공원사업소 ☎ 440-4952

## 환경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열립니다

우리시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라자원환경센터에서는 ‘아껴쓰

고 다시쓰는 환경사랑’을 주제로 그림그리기 대회를 엽니다.

■ 일시 : 10월 11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30분

■ 장소 :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청라마당

■ 참가부문 : 유아부, 초등저학년부(1~3), 초등고학년부(4~6)

■ 작품 : 크레파스, 수채화, 유화 중 1점 선택(도화지배부)

■ 접수방법

– 인천환경공단 홈페이지(www.eco-i.or.kr)를 통한 접수

– 한국청소년문화사업단 ☎ 434-5711, FAX 435-5713

– 행사 당일 오전 11시까지 현장 접수

■ 부대행사 : 시설견학, 재활용 화분 만들기 외

■ 문의 :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 관리팀 ☎ 899-0400, 899-0411

## 정지후원금기부센터 운영합니다

■ 우리가 기부한 작은 정성이 깨끗한 정치를 만듭니다.

국회의원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시거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

회에 기탁하시면 됩니다. 건실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정치

자금으로 비릇된 부정과 불신으로는 건전한 정치발전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부하는 정치자금은 건강하고 희망을 주

는 정치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정치자금 후원으로 세제혜택까지 누리세요.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됩니다.)

■ 홈페이지 이용 정치자금 기부 안내

– 기부방법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http://icec.go.kr)접속 정치자금

기부센터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거나

• 기탁금기부센터(www.give.go.kr)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기

탁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회홈페이지(www.assembly.go.kr) 의원광장에

서 국회의원 후원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 아름인(www.arumin.co.kr)에서 편리하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http://icec.go.kr)

☎ 438-3873

## 옥상녹화 사업 지원 안내

도심지 부족한 녹지 공간 확보와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 및 건물

냉·난방비용 절감은 물론 자연친

화적이고 품격 높은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민

간옥상녹화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옥상녹화 공모

– 공모기간 : 매년 5월~6월

– 공모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참조

■ 옥상녹화 지원기준

– 대상면적 : 100㎡~1,000㎡

– 유형별 구분

① 옥상파복 녹화형 : 7만5천원/㎡

② 옥상정원·혼합형 : 10만원/㎡

■ 대상건물

– 단독 및 공동주택 등 옥상녹화 효과가 높은 건물

– 어린이집·유치원 등 자연학습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한 건물

– 복지관·문화시설 등 일반 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건물

– 상업용 건물, 업무용 건물, 공장(기업체)등 옥상녹화가 가능

한 건물

■ 문의 : 시 공원녹지과 ☎ 440-3690~4 및 군·구 녹지관리부서



## 취업 100% 국비 무료교육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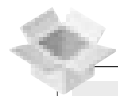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에서는 국비 무료교육을 실시합

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과정	학과명	정원	응시자격
2년 과정 (전문학 사 과정)	컴퓨터응용설계제작	00	학력 : 고등학교졸업(예정 자) 또는 동이상의 학력이 있는 남녀 (전문대, 대졸 포함)
	메카트로닉스	00	
	자동화제어시스템	00	
	컴퓨터응용금형설계	00	
	전기시스템제어	00	
1년 과정 (기능사 과정)	임베디드컴퓨터	00	연령 : 제한 없음 (단 장기 입영연기 가능자)
	가구디자인	00	
	컴퓨터응용설계제작 (CNC밀링)	00	





info box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사진 1매
  - ※ 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증과 성적증명서 1부
  -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 1년 과정(기능사과정은 응시원서(소정양식, 사진 1매)만 제출
- 특전 : 수당(년 최고 240만원) 지급, 기숙사 및 식비 무료, 기 사·산업기사 취득, 전문학사·학사 학위 취득
- 위치 : 인천지하철 원인재역 1번 출구 도보 5분, 좌석 103번 일반 34번 인천인력개발원 앞 하차(한국산업인력공단 앞)
-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 810-6520~4

교통안전 질서백일장 열립니다

도로교통공단과 인천경찰청에서는 시 교육청의 후원으로 어린이들의 건전한 교통안전의식 고취와 준법 정신을 확산시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질서백일장(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일시 : 10월 18일(토) 오후 2시 30분~5시
- 장소 :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외공연장(연수구 옥련동 소재)
- 참가 대상 : 인천시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1개교 4명 이내)
- 신청서 접수 : 10월 6일(월)~10월 13일(월)
- 접수요령 : 우편 또는 FAX (830-6180)접수 ⇒ 신청자 연명 으로 작성
- 학교장 명의로 별지 서식 참가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접수장소 :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 교육홍보팀 (연수구 대암로 46번지)
- 준비물 : 필기구(연필 및 원고지 작성에 필요한 받침)
- 행사 진행 : 참가 신청을 한 학생은 행사 장소에 오후 2시30 분 까지 도착, 등록 후 참가증 및 원고지를 교부받은 후 안내 에 따라 행사장에 게시되는 주제에 의거, 글짓기 실시
- 참고 사항
  - 입상자 발표는 해당 학교로 통보하며, 공단 홈페이지 (www.rota.or.kr)에서 확인
  - 참가자에게는 행사 당일 원고지와 기념품 및 간식 제공함.
- 문의 :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육홍보팀 ☎ 830-6162, 6168, FAX 830- 6180

562돌 한글날 기념 제3회 시민·학생 백일장

시민·학생들로 하여금 글쓰기를 통해 문학적 정서 함양과 함께 한글 창제의 의미를 새기고 한글의 우수성을 드러내고자 '562돌 한글날 기념 제3회 시민·학생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시민·학 생(인근 시도 거주자 참가 가능)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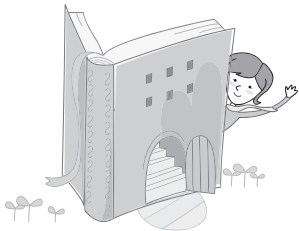
- 일시 : 10월 9일(목) 오후 2시
- 장소 : 자유공원 비둘기 광장(중구소재)
- 참가방법 : 문인협회 인천광역시지회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신 청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
- 참가 부문 : 초등부·중고등부·일반부
- 시상 범위 : 3개 부문 장원 각 2명(시, 수필)  
3개 부문 차상 각 2명(시, 수필)  
3개 부문 차하 각 3명(시, 수필)  
3개 부문 장려 각 4명(시, 수필)  
3개 부문 입선 각 5명(시, 수필)

- 문의 : 한국문인협회인천광역시지회 ☎ 863-1797 Fax 876-1797

책이랑 놀자

푸른생협 공세알 도서관이 개관 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책잔치 '책이랑 놀자'를 마련 합니다.

- 일시 : 10월 4일(토) 오후 2시~5시
- 장소 : 하촌 어린이 공원(만 수1동 삼환 아파트 주변)
- 참가자 : 누구나



시간	프로그램	진행
14:00 ~ 14:10	시작마당(개회식)	사회자, 관장님
14:10 ~ 14:40	민요마당	최경애 선생님
14:40 ~ 15:40	동시마당	김미혜 선생님
15:40 ~ 16:00	생일떡마당&시식마당	사회자, 최경애선생님, 활동팀
16:00 ~ 16:50	모둠마당(도깨비마당, 책표지 마당, 염색마당)	백선숙, 류민숙, 권순실 외5명
16:50 ~ 17:00	마무리마당(폐회식)	사회자
14:00 ~ 17:00	좋은 책 전시마당(어린이도서연구회 인천남동지회)	

- ※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일부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공세알도서관 ☎ 464-2348

인천 소래포구축제



구 분		일정 시간	10월 2일(목) 소래의 날	10월 3일(금) 화합의 날	10월 4일(토) 참여의 날	10월 5일(일) 기약의 날
매 인 무 대		12:30	서해안풍어제			주엿소리
		13:00~14:00		주엿소리	전통바다 노래공연	갯가노래
		14:00~15:00		갯가노래		
		15:00~16:00		은율탈춤	주민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소래포구 노래자랑
		16:00~17:00				
		17:00~18:00	인천시립무용단 공연 (개막퍼레이드 입장)	생활체조 발표회	소래포구 아름다 선발대회	1부 폐막식 2부 폐막공연 3부 불꽃놀이
		18:00~19:00	1부 개막식			
		19:00~20:00	2부 주재공연	국제 민속공연		
	20:00~21:00	3부 축하공연(ICN) 4부 불꽃놀이				
체 험 참 여 행 사	주행사장	12:00~18:00	해산물요리체험, 김치담그기, 찢갈뎃그기, 소래공방, 낚시체험, 해산물도식라체험, 장어잡기체험, 소원지쓰기 등			
	보조 무대		수산물감쪽경매, 굴비따기체험, 뽀빠이선발대회			
	장도 포대지			서해안풍어제		
	소래포구		소래전망대 / 포토존 / 소서노웃어보기체험 / 예술인거리			
			선상생동해녀대회			
			어선돌러보기체험 / 수산물경매관람			
	소래습지 생태공원		소래습지생태전시관(건국60주년사진전시회), 염전체험, 갯벌체험 등			
	지역특산물 및 부대행사	10:00~20:00	소래옛장터, 새우젓홍보판매장, 소래수산물직거래장터, 새우(대하) 원가판매장, 어구아와전시장, 소래해강전시관, 영페스티벌, 사진촬영대회, 지구촌민속공연 외			

- 문의 : 남동구 문화홍보실 ☎ 453-2140

Sky Festival



구분	10월 17일(금)	10월 18일(토)	10월 19일(일)
오전 / 오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riendship party</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een AirPort 경진대회</li> <li>• 하늘 사랑 미술대회</li> <li>• Sky 한마당</li> <li>• School Show</li> <li>• Sky Contest</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y Festival배 유소년 축구 대회</li> <li>• 영화 시사회</li> </ul>
저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y Festival 축하공연</li> <li>- Sky Fashion Show</li> <li>- 인기가수 축하공연</li> </ul>		
상설 프로 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y Academy • 항공우주 특별 전시 /체험존 • Sky Air Balloon (열기구 체험)</li> <li>• 항공 직업 체험관 • Sky Playground(놀이터) • Sky Garden(관광객 이벤트 서비스)</li> <li>• World Culture &amp; Food Town(세계 음식 · 풍물 및 지역주민 한마당)</li> <li>• 세계국립극장홍보관</li> </ul>		



- 문의 : 시 항만공항지원과 ☎ 440-3373

제7회 인천음식문화축제 주요행사 일정



구분	시간	10일(금)	11일(토)	12일(일)	
참여 행사	12:00~13:00	고추장담그기	독거 어르신 초청 나눔	독거 어르신 초청 나눔	
	13:00~14:00				
	14:00~15:00		고추장담그기	자랑면 불리먹기, 음식 OX퀴즈 맨손 미꾸라지 잡기	고추장담그기
	15:00~15:30				
	15:30~16:00				
	16:00~16:30		사람의 김치만들기		
	17:00~18:00		독거 어르신 초청 나눔	채소, 과일 썰기	채소, 과일 썰기
	18:00~19:00				
	14:00~18:00	추억거리 : 먹을거리(달고나, 뽕튀기, 엿, 과자 등), 볼거리(옛날 물건 전시 및 포토존), 놀거리(전통놀이 마당) 추억의 테마거리 : 키타리아저씨,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열쇠고리·뽕지만들기 등 공연 테마거리 : 소공연 궁중테마 : 수라상 올리기, 사상체질 진단, 장금이 포토존 등 참여테마 : 떡메치기, 식생활지침 다트게임, 비만체험관 등			
	경연 대회	10:00~14:30	학생제과·제빵경연대회		
		15:00~17:00	향토·전통 및 특색음식 경연대회		
	참여 이벤트	화전부치기, 잣술끼우기, 율란빚기, 케이크만들기, 케이크 빨리 먹기, 생크림 높이 짜기, 반죽 길게 늘리기, 다식만들기, 꽃 절편만들기, 천연조미료만들기			
상설 행사	11:00~23:00	인천 대표음식, 특색음식거리 운영, 식품안전 및 출산장려 홍보관, 2009 세계도시축전과 인천방문의 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관 운영			

- 문의 : 시 위생정책과 ☎ 440-2762

## Partake In Sky Related Activities



Mr. Kim : Hello Mr. Smith. It's been a long time.  
How are you? How was your flight?

Mr. Smith: Please, call me Bruce. My flight was  
fantastic. I got to stretch out during the  
flight because no one sat beside me.

Mr. Kim : Oh, I love it when that happens. Bruce,  
what are your plans for your time in  
Korea?

Mr. Smith: Well, I have a meeting in Seoul from  
the 1st till the 3rd, but after that I am  
free for a few days.

Mr. Kim : I have some ideas for what we can do.  
Incheon has many famous places to visit.

Mr. Smith: Sure, everything is new to me, so I'll  
let you take the lead.

Mr. Kim : I have heard that the Incheon Sky  
Festival is a hoot. I think we should go  
this weekend. What do you think?

Mr. Smith: Sounds great! Let's go.

Mr.김 : 안녕하세요? 스미스씨, 참 오랜만이군요. 어떻게 지  
내십니까? 비행 여행은 어땠습니까?

Mr.스미스 : 저를 브루스라고 불러주십시오. 저의 비행은 아주 좋  
았습니다. 옆 자리에 승객이 없어서 저는 비행동안  
편안히 손, 다리를 쭉 뻗을 수 있었습니다.

Mr.김 : 저도 그런 경우를 참 좋아합니다. 브루스, 한국에 있  
는 동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Mr.스미스 : 글썄요, 저는 서울에서 1일부터 3일까지 회의가 있습  
니다. 그리고 나면 며칠 동안은 여유가 있습니다.

Mr.김 : 저에게 그때 우리가 할 만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인천에는 가볼 만한 많은 유명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Mr.스미스 : 예,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롭습니다. 저는 미스터 김이  
이끄는 대로 하겠습니다.

Mr.김 : 저는 인천 하늘축제가 재미있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  
에 축제에 가 보는게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r.스미스 : 좋은 생각입니다. 가 봅시다.



글 · Daniel James Hendry 인천영어마을(www.icev.go.kr) 강사

### THE INCHEON SKY FESTIVAL

Annually in Octobe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the  
surrounding area host the Incheon Sky Festival. It is a time for the  
whole nation to gather behind Incheon, the gateway to the country  
and partake in sky related activities. The festival features flight  
experience tours, a model airplane flying contest, an Incheon Sky  
Queen Contest, a Korean folklore exhibition and other interesting  
events. The previous festivals have been great. So, make your way  
out to the Incheon Sky Festival and support your community and  
city. Incheon Fighting!!

매년 10월에 인천 국제공항과 그 주변지역에서 인천  
하늘 축제가 열립니다. 이때는 전 국민이 한국으로 들  
어오는 관문인 인천을 후원하며, 하늘과 관련된 여러  
활동들에 참여하는 때입니다. 축제는 비행체험관광, 모  
형비행기 날리기 대회, 인천 하늘여왕 대회, 한국 민속  
박람회와 다른 흥미로운 이벤트들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전까지의 축제들은 훌륭했습니다. 인천 하늘 축제  
에 오셔서 인천지역사회와 인천시를 지원해 보십시오.  
인천 파이팅!

# 생각대로! 천마터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천마터널이 지켜드립니다.



기존의 우회도로인 원적산길과 천마터널을 통해서 백마장 사거리에서  
석남1고가까지의 시간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천 → 중동IC → 삼산지구 → 부평구청 → 대우자동차 → 백마장 → **천마터널**  
→ 석남동 → 가정동 → 서인천IC → 북항 → 청라도 → 영종도 → **인천공항**

이용도로	거 리	신호등	소요시간	유류비	통행료	계
<b>천마터널</b>	<b>2.3km</b>	<b>2개</b>	<b>2분 정도</b>	<b>394원</b>	<b>800원</b>	<b>1,194원</b>
원적산길	4.1km	13개	12분 정도	1,674원	0	1,674원
<b>차이</b>	<b>1.8km</b>	<b>11개</b>	<b>10분 정도</b>	<b>1,280원</b>	<b>800원</b>	<b>480원</b>

※ (주) 본 자료는 특정일, 특정 시간대를 기준하여 실측한 자료입니다.(배기량은 2000cc 연비 10km/ℓ 휘발류 승용차 기준임)



천마개발(주)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 133-8 Tel. 032)508-6891 Fax. 032)508-6896